

한국 YWCA

2022년 7·8월호
JULY · AUG Vol.579

기획 한국YWCA 100주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YWCA 역사포럼_ 한국YWCA 기독여성운동의 기억과 전망
100주년 기념 사진전_ 변화를 향해 우리, 햇불을 들다

특집 100주년 기념사업 YWCA여성평화 순례와 포럼

YWCA 국제여성평화 포럼_ 여성이 만드는 평화, 어떻게 지속가능한가
2022 여성평화 순례_ 함께, 평화를 만들다

기후위기와 여성

기후위기 속에서도 땅과 생명을 살리는 여성농민

이달의 현장

2022 Y-틴 전국회원대회



“2022년 한국 YWCA 100주년 이렇게 펼쳐집니다.”



한국YWCA 창립 100주년 비전 수립	• 고백과 성찰. Y(Young), W(Women), C(Christian), A(Association) 주제별 핵심가치와 방향성 키워드 논의 • 한국YWCA 100주년 인비저닝 워크숍 개최	1~3월	• 새로운 100년을 향한 한국YWCA 비전 수립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 기념예배 • 기념식 • 기념특강	4월 20일(수)	• 창립 100주년 의미와 비전 선포 • 한국YWCA 100주년 대사회적 알림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감사축제	• 한국YWCA 100주년, 새로운 100년에 대한 감사 • 한국YWCA 100년을 만들어온 YWCA 회원 시상	9월 29일(목)	• 한국 100주년 기념해를 감사로 마무리 • 한국YWCA 리더십, 사람들과 함께 해온 역사 알림
한국YWCA 100주년 기념 화보집 발간	• 한국YWCA 100년 화보집 발간	6월	• 한국Y 100주년 역사 공유
한국YWCA 100주년 기념 국제여성평화포럼	• YWCA 국제여성평화포럼 • 한국사회와 YWCA 평화운동의 의미 고찰	7월 6일(수)	• 한국Y 평화운동 의미와 성과 대사회적 공유
한국YWCA 100주년 여성평화순례	• 여성평화순례(임진각 평화누리공원)	7/7(목)	• 여성평화국내외 교류와 연대 강화 • 평화통일 의식 확산
100주년 기념 사진전	• 시민과 함께했던 한국 YWCA 100주년의 역사 알림 • 전시명 : 변화를 향해 우리, 햇불을 들다	7월 13일(수) ~ 7월 26일(화)	• 한국Y 100년 역사 공유와 확산
한국YWCA 100주년 기념 YWCA 역사포럼	• 한국YWCA 초기 역사 조망 • 한국YWCA 역사적 성찰과 고백 • 한국사회와 YWCA의 역할	7월 22일(금)	• 한국Y 초기 친일 역사 정리와 해석
한국YWCA 100주년 기념 청년포럼	• 한국YWCA 청년운동의 의미 • 새로운 100년, 청년운동 방향 모색	11월	• 한국Y 청년운동 의미와 비전 공유
홍청망청_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 프로젝트 공모(스타트업 챌린지, 공간기반 프로젝트, 청년예술가, 회원Y 참여프로젝트) 선정 지원과 모니터링	연중	• 청년 프로젝트 지원(1억원 모금) • Y청년 운동성 증진 • 외부 청년 Y참여 경로 마련
한국YWCA 100주년 기념 역사전시관, 채플실 운영	• 온·오프라인 자료관 운영 • 특별전시관 운영 • 채플실 운영	연중	• 한국Y 100주년 활동과 운동 의미 홍보 • 한국Y 기독교정신 공유
한국YWCA 100주년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 청년 글로벌리더와의 만남(사람책방) • 아시아 글로벌네트워크 • 제66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파견 • 세계교회협의회(WCC) 11차 총회 파견 • 청년참여단 활동	연중	• 아시아청년 소통체계 구축 • 청년글로벌 리더 지원과 양성 • 대학·청년Y 활동 홍보

2022. 7·8 한국YWCA



표지이야기
100주년 기념사업 YWCA여성평화 순례와 포럼 둘째날, DMZ를 눈앞에 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2022 YWCA 평화순례단이 한반도기를 펼쳐 두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

2022년 9-10월 주요일정

- 9월 1일 9월 월례기도회
- 9월 1일 도너스 온라인모금 교육
- 9월 20일~21일 전국 중경회장 모임
- 9월 24일 9.24 기후정의행진
- 9월 29일 YWCA 감사축제
- 10월 4일 10월 월례기도회
- 10월 4일 WCD 여성평화주간 다규영화 'Crossings' 상영회(씨네Q극장)
- 10월 5일 제4차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청소년
- 10월 27일 YWCA 정책협의회

제58권 제4호 통권 579호
2022년 8월 26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인 구정혜
편집 김은주 최수산나 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역사를 만나 미래를 열다 | **이은영**
- 05 **말씀 묵상** 비전, 열정, 헌신의 여성 리더 | **신옥수**
- 기획 한국YWCA 100주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 07 YWCA 역사포럼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기억과 전망' | **윤수정**
- 10 100주년 기념 사진전 '변화를 향해 우리, 햇불을 들다' | **안정희**
- 특집 100주년 기념사업 YWCA 여성평화 순례와 포럼**
- 12 국제여성평화포럼
- 14 2022 여성평화 순례
- 17 2022 YWCA 여성평화선언문
- 18 **탈핵** 기후불평등 너머 광야 이대로 살 수 없다 | **황인철**
- 20 **기후위기와 여성** 기후위기 속에서도 땅과 생명을 살리는 여성농민 | **이윤숙**
- 22 **평화** 여성이 만들어가는 평화 | **김성경**
- 25 **로컬프렌들리 이야기8** C - 지역생활커뮤니티 (Local Lifestyle Business) | **김수진**
- 28 **청년토크** MZ세대의 소비트렌드, FOR ME족 | **대학·청년Y**
- 30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의 근원 | **김선영**
- 32 **CBS-NCKK 한반도 평화포럼**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을 묻다 | **남기평**
- 34 **이달의 현장 ①** “요즘 날씨 Y라노” | **편집실**
- 36 **이달의 현장 ②**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 **편집실**
- 38 **이달의 현장 ③** “Y인으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정서연**
- 39 **이달의 현장 ④** 보노보 프로젝트팀 연구 ‘우리가 남기는 흔적의 문양들’ | **홍현정**
- 41 **이달의 현장 ⑤** 2022 양성평등 임금의 날 워크숍 | **이한빛**
- 44 **교회와 함께** 갈등과 위기의 세상에서 화해와 일치를 외치다 | **채송희**
- 47 **YWCA 변화와 혁신9** 회원YWCA 재구조화 전문 상담, 챗봇(why봇) 상담 | **조직혁신지원국**
- 50 **기도문** 2022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 51 **기자회견문**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9월 24일 광화문으로 모이자
- 52 **연합회 소식**
- 59 **연합회 모금 현황**
- 62 **회원YWCA 소식**

역사를 만나 미래를 열다

이은영

(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지난 주, 독립기념관에 갈 일이 있어 오랜만에 방문을 하였다. 이런 글이 걸려있었다. '역사를 만나 미래를 열다'. 광복 77주년을 맞은 올해의 캠페인 메시지라 하였는데 100주년을 맞은 YWCA에게도 큰 울림이 있는 글이라 생각이 들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Y는 지난 7월 13일(수)부터 26일(화)까지 서울메트로미술관에서 100주년 기념 화보집을 발간하면서 기념 사진전을 가졌다. 화보집의 사진을 보면서 100주년의 긴 역사를 훑어볼 수 있었고, 초기 YWCA를 설립하셨던 선배 활동가들의 정신과 믿음과 헌신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가슴 벅찬 감동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100주년의 역사를 사진으로 만나면서 보다 더 생생하게 역사의 한 자락을 함께 보는 느낌이 들었고 신실하고 헌신적인 Y의 활동가들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넘치는 경험을 하였다.

7월 22일(금)에는 'YWCA 100년, 기독교여성운동의 기억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100주년 역사포럼이 열렸다. 1922년 일제강점기, '여성해방과 민족 독립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YWCA 초창기 창립 정신과 목적, 시대적 상황에 굴복했던 역사적 과오, 그리고 한국 전쟁 전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여성운동의 관점에서 '학생', '청년', '지역' 등을 키워드로 YWCA 운동의 기억과 전망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 발제를 맡으신 외부 연구자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한국YWCA 100년은 한국 여성운동 100년, 기독교

운동 100년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었는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100주년 사진전과 역사포럼을 지나면서 역사가 주는 힘이 참으로 크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100년 전 YWCA를 창립했던 우리의 선배 활동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꿈꾸며 어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던 걸까 라는 생각과 함께 100년을 이어온 YWCA의 운동의 역사가 수많은 활동가들의 기도와 헌신과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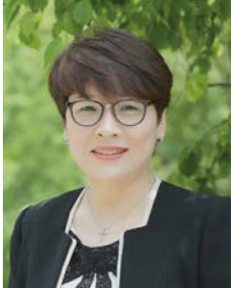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홀로 또는 같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의 고뇌와 기도가 YWCA를 버티는 힘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올해 100주년의 메시지는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이다. Y는 1922년 발기문에서 밝힌 것처럼 초기부터 늘 여성과 함께, 사회의 소외된 여성과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꿈꾸며 사회변화를 위한 여성들의 적극적 역할과 활동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역사의 경험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Y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지역에서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한 실천운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비전, 열정, 헌신의 여성 리더

신옥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본문 말씀 사사기 5:1-12

100년 동안 한결같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생명, 정의, 평화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피, 땀, 눈물을 쏟아온 YWCA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YWCA의 역사가 곧 한국 기독교여성의 역사요, 한국 YWCA의 미래가 또한 한국 여성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리더십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비전, 열정, 그리고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드보라 역시 강력한 비전과 뜨거운 열정, 신실한 헌신의 사람이었지요. 드보라의 노래로 유명한 오늘 말씀은 시스라 전쟁에서 승리한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드보라의 비전, 열정, 헌신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비전의 리더입니다. 비전은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 계획을 세우고, 불쏘시개가 되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앞을 밝히는 횃불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횃불을 뒤따라갔어요. 드보라는 답답하고 무거운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 전쟁에서의 승리를 미리 내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드보라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 미래를 앞당겨 보여줍니다.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

어내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안목으로는 실패가 명백한 전쟁이 오히려 하나님의 두 손에 달려 있음을 분별해 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비전을 지닌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고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희미했던 그림들이 분명해지고, 흐릿했던 초점들이 명확해지며, 이전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비전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꿈을 꾸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는 비전의 리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YWCA의 발전과 성숙을 위한 영감과 창의력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비전을 새롭게 하고 또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드보라는 열정의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품었던 여인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 애끓는 마음이 없었다면 도무지 승산 없는 전쟁을 주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스라의 군대에게 먹힐 것이 뻔한데, 다 빼앗길 것이 분명한데, 이제 어미 닭이 알을 품는 심정으로 백성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 통째로 전달되어 모두 뒤따라 일어서게 되었지요.

건강한 리더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아 그 불씨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온 세상을 품어 안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삶과 피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되면 우리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 이전에, 행동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Hesed)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크기와 깊이와 넓이에 젖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에 접촉할수록,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와 YWCA에 대한 열정이 생겨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가득 채워주시길 간구하며 사모하는 리더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어머니의 심정을 지닌 여성 리더들을 찾고 계십니다.

드보라는 헌신의 리더입니다. 헌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백성들에 앞장서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먼저 나아간 것입니다. 출선수범이 리더의 우선순위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

사와 재능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희생하는 것이지요. 드보라는 헌신과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건강한 리더십의 결정적인 표지는 “끝까지 잘 마치는다”(finish well) 것입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전쟁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스리는 지도자였어요. 일관성있게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은 늘 열매를 의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세로 임하는 신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비전과 열정, 헌신의 리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동하고 하늘과 땅, 구름과 산들도 감동하는 리더십을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드보라의 모습을 닮아 비전, 열정, 헌신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비전과 열정과 헌신이 한국 교회를, 그리고 YWCA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곧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기록한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사사기 5:1~12

1. 그 날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2.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3. 너희 왕들이라,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이라,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4. 주님,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예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5.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시내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6. 아낏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7.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8.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사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9.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쏟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라.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10.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이라,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11. 물 길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 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 때에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12.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다. 일어나라, 바락아.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암의 아들이라.

YWCA 역사포럼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기억과 전망

윤수정

(사)한국YWCA연합회 아카이브 PM



2022년 7월 22일(금) 오후 2시, 서울YWCA 강당에서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YWCA 운동의 기독교여성운동사적 의미를 성찰하고 100년 이후 새로운 역사 속에서 펼쳐갈 기독교여성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이 기억과 전망'을 주제로 YWCA 역사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약 100여 명의 현장 참가자와 약 130여 명의 온라인 참가자들이 함께 하였다.

이번 역사포럼은 1922년 일제강점기 '여성해방과 민족 독립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YWCA 초창기 창립 정신과 목적, 시대적 상황에 굴복했던 역사적 과오, 그리고, 한국 전쟁 전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여성운동의 관점에서 '학생', '청년', '지역' 등을 키워드로 YWCA운동의 기억과 전망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한국YWCA 창설자 중 한 분인 김필례 선생의 사역을 연구하고 그 업적을 기리며 널리 나누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김필례선생기념사업회와

공동주최로 개최하여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YWCA 역사포럼은 창립 시기인 일제강점기-6.25 전쟁 전·후 시기(이후 세션1)와 1970년대-현재까지의 시기(이후 세션2)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세션에서는 손승호 박사(재)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사무국장이 '일제 강점기 조선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시작과 변화'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손승호 박사는 조선YWCA의 출발과 초기 활동 그리고 굴곡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무엇보다 1930년대 중반, 기독교여성운동의 존재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폭압적 권력의 강요 앞에 조직 논리를 앞세워 순응한 일과 그 후의 반성 없는 모습을 지적했다. 그 당시 선배 활동가들의 친일 활동에 대하여 이들이 여성 교육에 대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친일행위를 했다는 평가는 멈춰야 하고 친일 행위에 서사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고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순간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YWCA 목적문으로 돌아가 하나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

YWCA 역사포럼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기억과 전망

LIVE ONLINE 한국YWCA 유튜브 생중계
 • 일시: 2022년 7월 22일(금), 14:00 - 17:30
 • 장소: 서울YWCA 4층 강당
 • 공동주최: 한국YWCA연합회, 김필레기념사업회

순서	주제	발표자
세션 1: 일제 강점기 - 6.25 전후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		
발제 1	일제 강점기 조선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시작과 변화	손승호 박사 (재)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발제 2	해방 직후부터 6.25 전후 시기 한국YWCA 살림의 기독교여성운동	김은하 박사 장로신학대학교
종합토론 1	세션 1 종합 토론	서정민 교수 일본 게이조기후유엔대학
세션 2: 1970년대 이후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		
발제 3	한국기독교여성운동과 YWCA 기독교여성운동	도임방주 총무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발제 4	지역청년운동으로서의 YWCA 기독교여성운동	박지영 교수 송실사이버대학교
발제 5	YWCA정신이 살아있는 교육을 위하여	이다인 학생 정신예고 2학년
발제 6	YWCA정신이 살아있는 지역을 위하여	신보미 사회복지사 청주YWCA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종합토론 2	세션 2 종합 토론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님이 한국YWCA에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 맞추는 YWCA가 되어야 함을 발표하였다.

손승호 박사의 발제에 이어서 김은하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는 '해방 직후부터 6.25 전후 시기 한국YWCA 살림의 기독교여성운동'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김은하 박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항주 세계YWCA협의회 의미와 동서양 여성들의 연대에 대하여 그리고 6.25 전쟁 전후 한국YWCA가 전개한 '살림'의 실천으로서 기독교여성운동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김은하 교수는 발제에서 "YWCA의 역사는 한 점 한 점 연결된 사람들이 전 세계를 연결하고, 세계를 바꿔 나가는 운동이었다. 시대가 변할 때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를 발견하고 한 발 앞서 나갔던 그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의 손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두 학자들의 발제에 대하여 서정민 교수(일본 메



이지가쿠인 대학)가 토론을 하였다. 서정민 교수는 손승호 박사의 발제에 대해서 조선YWCA의 연구 관점을 설립의 근원성, 한국교회사, 여성 교육사, 일본YWCA의 방향 등 좀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접근하면 더 훌륭한 발제가 될 것이라 하였고, 김은하 박사의 발제에 대해서는 한계와 반성점을 찾아서 역사적 비평과 미래적 과제를 제시하면 금상첨화가 되었

을 것이라며 두 학자의 논문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였다.

세션2에서는 도임방주 총무(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가 '한국기독교학생운동과 YWCA 기독교여성운동'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도임방주 총무는 기독교학생운동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 기독교학생운동으로서의 YWCA, 기독교청년운동으로서의 YWCA, 기독교여성운동으로서의 YWCA에 대한 고민을 YWCA 목적문을 중심으로 풀어나갔다. 무엇보다 어려움이 있거나 자성의 목소리를 낼 때마다 외부 남성 목회자나 신학자들에 의존해왔던 부분들을 지적하며 YWCA 역사 속에서 기독교성을 바탕으로 활동하신 선배 활동가들의 목소리와 고백을 통해 '한국YWCA의 신학'을 정립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박지영 교수(송실사이버대학교)는 '지역청년운동으로서의 YWCA 지역여성운동'을 주제로 지역에서 전개된 YWCA 여성운동의 흐름과 방향, 현황과 문제점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청년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에서 지역중심의 운동성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의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구축과 청년정책 수립이 중요한 과제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역청년운동의 새로운 실험으로 군산로컬프렌들리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실험, 열린 마음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개방성 등이 지역에서의 여성의 주체화, 청년운동의 활성화, 운동성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노력임을 제안하였다.

이번 역사포럼은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와 공동주최로 진행하면서 김필레 선생이 몸담고 후학을 양성했던 정신여자고등학교의 학생회장인 이다인 학생이 'YWCA 정신이 살아있는 교육을 바라며'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배운 만큼 달라야 하고 믿는 만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김필레 선생의 '실천적 여성리더십'이 현재의 청소년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고 후대 세기의 하나님 나라 청소년들에게도 이어져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성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백하였다.

청주YWCA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운동을 전개하

고 있는 신보미 사회복지사는 'YWCA 정신이 살아 있는 지역을 바라며'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청주 지역에서 청주YWCA가 여성들과 함께 전개한 지역운동의 과정과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 등을 공유하였고, 무엇보다 지역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들의 치열한 논의와 고민, 조직화를 위한 실무적 교육이 중요하였음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00년 이후 지역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하여 YWCA가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목적과 정체성을 고민하며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면 된다고 강조하였다.

세션2의 네 개 발제에 대하여 이은영 부회장(한국YWCA연합회)이 토론을 맡아서 각 발제에 대한 보충 설명과 소감 등을 발표하였다. 청(소)년, 지역, 여성을 키워드로 한국YWCA가 전개한 기독교여성운동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발제들을 들으면서 한국YWCA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연합회가 지역과 청(소)년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발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이번 역사포럼 발제자들은 사전 미팅에서 한국YWCA가 100년의 역사 속에서 전개한 많은 의미있는 활동들을 연구하고 공론화하는 자리가 없었음을 아쉬워하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YWCA의 운동사를 주제별 혹은 연대기별로 나눠서 의미와 역할, 영향력 등을 살피고 이를 통해 100년 이후의 한국기독교여성운동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토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역사포럼을 계기로 한국YWCA 역사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의 장이 만들어져 100년을 넘어 지속가능한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이 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전략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역사포럼은 YWCA 목적과 정체성이 우리 조직의 굳건한 근본이 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자리였고 100년을 맞이한 YWCA에 대한 기대의 물꼬를 트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한국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앞으로도 한국YWCA는 지역의 (젊은)여성들과 함께 정의, 평화, 생명 세상으로의 변화를 향해 거친 바다를 항해할 것이다.

1) [출처: 뉴스앤조이] '여성 해방운동부터 '탈핵'성평등 운동까지, 한국YWCA 100주년...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연대해야'

‘변화를 향해 우리, 햇불을 들다’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 사진전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 사진전 ‘변화를 향해 우리, 햇불을 들다’를 7월 13일(수)-26일(화)까지 2주간 지하철경복궁 역사 내에 위치한 서울메트로미술관에서 개최하였다. 경복궁역을 지나는 일반시민, YWCA회원, 관련단체 관계자 등 약 5,000여 명이 이상이 관람한 이 사진전은 전시회에 앞서 발간된 100주년 기념 화보집에 수록된 사진들 중에서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여성활동가들의 모습을 선별하여 전시하였다.

전시는 한국YWCA 운동변화에 따라 10개의 연대기별 전시, Y(Young)와 W(Women)를 주제로 한 테마전시, 영상으로 보는 미디어 아트전시, 참여형 포토존으로 다채롭게 구성하였으며, 4종 기념 엽서를 제작하여 한국YWCA의 100년의 활동과 비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YWCA 100주년 화보집 출판기념회와 사진전 오프닝’ 행사 진행

갑작스런 호우가 내린 7월 13일(수) 오후 5시, 서울메트로 미술관에서 열린 ‘한국YWCA 100주년 화보집 출판기념회와 사진전 오프닝’ 행사에는 후원자/기업, 광주, 부산, 서울, 인천 등 회원YWCA, 유관단체, 국내사진가, 기자, 한국YWCA연합회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컷팅, 발간사, 화보집과 사진전 소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YWCA 100주년의 의미가 담긴 화보집 출판과 사

진전을 축하했다.

2주간 무휴로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된 이번 사진전 기간 동안 연합회 활동가들이 매일 전시장 안내를 진행하였으며, 관객들을 대상으로 SNS에 전시 소개와 관람 후기 작성 이벤트를 진행하고 페이스북에 후기를 작성한 10명에게 화보집을 발송했다.

사진전에 참석하여 ‘여성폭력반대 X’ 사진의 의미를 물어본 초등학교 2학년 번서후 학생은 설명을 듣고 본인도 ‘이제 모든 종류의 여성차별을 반대하겠다’는 결심을 보드판에 적기도 했다. 페이스북에 사진전 후기를 쓴 김무웅님은 “한국YWCA 100주년 사진전을 관람하고 여성 리더십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었으며, 여성과 남성이 대립이 아닌 서로 협력해 우리사회가 균형 잡힌 건강한 사회를 되도록 본인도 노력하겠다”고 남겼다. 이창수님은 “YWCA 활동이 계몽운동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거시적으로 보니 ‘여성’ ‘청년’ ‘기독교’인들의 삶의 주체 의식과 연대의식으로 이끌어온 역사임을 알았다”고 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우리사회의 여성인권을 위해 힘쓴 한국YWCA에 응원과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번 사진전은 한국YWCA 100주년을 많은 시민과 사회에 알리고, 앞으로 한국YWCA가 정의, 평화, 생명사회를 위해 더욱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정희

(사)한국YWCA연합회 부장



- 1 화보집발간사를 낭독하는 원영희 회장
- 2 화보집의 사진으로 사진전을 열었음을 설명하는 이은영 부회장.
- 3 서울메트로미술관에서 열린 100주년 사진전 오프닝
- 4 사진전 오프닝 테이프컷팅
- 5 단체사진 (변화를 향해 우리, 햇불을 들다)
- 6 7 서울메트로미술관 벽면에 배치된 족자 형태의 사진들
- 8 9 Y.O.U.N.G의 키워드로 사진 액자를 전시했다.
- 10 창립 100주년 기념 사진전 포스터

여성이 만드는 평화, 어떻게 지속가능한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YWCA 여성평화 순례와 포럼을 7월 6일과 7일 양일간 파주 출판단지 내 지지향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했다. 7월 6일 진행된 YWCA 국제평화포럼에서는 기초발제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일본, 한국 패널의 토론으로 국제회의를 진행했다. 이튿날 열린 100주년의 여성평화 순례에서는 6년간 585명의 평화순례단을 포함하여 1천여 명이 통일한반도의 순례자로 결단하였다.



7월 6일에 열린 YWCA 국제평화포럼은 “여성이 만드는 평화, 어떻게 지속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같은 제목의 기초발제(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를 비롯하여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현안에 대해 갈등과 분쟁 상황에 있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일본과 한국 등 세계여성들의 평화 연대를 위한 담론을 구축하고 평화의 실천을 위한 연대와 행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이날 국제포럼은 전세계 웨비나 사전 신청을 통해 줌에 접속한 참가자 150여 명과 YWCA활동가와 2022 평화순례단 100명을 포함한 현장 참여자 150여 명, 총 3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여성평화포럼이 됐다.

김성경 교수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국제적 수준의 냉전이 한반도에 작동하게 되면서 정전체제가 7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여성은 식민-전쟁-분

단-탈식민이라는 굴곡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한 동시에 가부장제라는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억압에서 피해자의 자리에서 고통받아 왔지만, 평화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남북여성의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다시 접근하여 평화 논의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성차별과 성폭력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초발제에 이어 첫 번째 패널에는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웨비나 줌에 접속한 알로냐 프로비덴체바 실무활동가로 전쟁 중의 어려움과 당혹스러움 등을 표현하며 우크라이나에 평화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스라엘 통치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평화 활동에 대한 발표를 맡은 아말 타라치 팔레스타인YWCA 사무총장은 특히 1차 2차 인티파다(Intifadas: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 지역에서의 팔레스타인에 의한 반란)기간 및 아파



르트헤이트 장벽 건설에 따른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분리 및 해체 이후 이동의 자유가 계속 제한되고 있는 등 여러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고 밝히며, 팔레스타인YWCA는 나크베(아랍어로 재앙: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의미) 기간 동안 이스라엘 갠단에 의해 도시나 마을에서 인종 청소를 당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환과 자기결정권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YWCA와 기부자, 전세계 팔레스타인 인권지지자들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 웨비나 줌 연결 상황이 좋지 않아 아말 타라치 사무총장의 음성이 끊겨서 이미 보내 온 발제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상황을 접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발표자인 히구치 사야카 일본YWCA 부회장은 1905년에 설립된 일본YWCA의 활동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평화운동에 집중되어 있고 2009년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대한 사과와 세계평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최근 10년간 우경화된 일본사회의 헌법 개정 운동에 대항하여 일본헌법 9조에서 명시한 평화주의 및 비군사주의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한반도 여성들의 평화 활동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숙진 전 한국YWCA Y아카데미 위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YWCA는 무력에 기반한 신군부와 운동권의 대항폭력이 난무하던 가운데 전국 정오기도회 ‘사랑과 평화의 일꾼으로 삼으소서’를 시발점으로 분단 이전의 북

한 지역 YWCA 재건 계획 북한바로알기 운동, 탈북민 교육과 직업훈련, 영유아 평화통일 교재 발간, 전국어린이집 평화교육, 청소년 평화캠프 등 1980년도 이후 YWCA는 평화운동의 허브가 되어왔음을 밝혔다. 2천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벌인 평화운동과 평화활동가 양성과정인 ‘길위의 평화포럼’, 최근 6년간 진행한 ‘YWCA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통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의 길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해왔음을 밝혔다.

국내외 380개 단체와 함께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피스챌린지(Peace Challenge), 피스먼데이 거리캠페인, 회원YWCA교육 등을 실행했고 요하네스버그 세계YWCA총회(2019)에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 서명 및 북한 여성 지원에 관한 호소’ 결의문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어 108개국 YWCA들의 지원과 연대를 확인하여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순서인 질의 및 전체 토론에서는 여성이 만드는 평화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이 모든 의사 결정 수준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확인하며, 인간 안보가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평화의 주체로서 여성의 책무를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 글·편집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통일 한반도를 꿈꾸다

창립 100주년을 맞아 6년째 열린 YWCA 여성평화 순례는 7월 7일(목)에 2022 평화순례단 100명과 연합회 활동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DMZ를 눈앞에 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렸다. 2022 'YWCA 여성평화 순례와 포럼'은 2017년부터 시작한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여성평화순례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2022 평화순례단은 2022 YWCA 여성평화선언문 '새로운 100년, 정의로운 평화의 길을 다시 떠남시다'를 함께 낭독하며 앞으로의 YWCA 100년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것을 결단하였다. 또한 여성평화 순례 후, 한반도기 위에서 다채로운 색상을 표현하는 한반도기 퍼포먼스에 이어 우크라이나 평화에 지지와 연대를 나타내며 우크라이나기를 우산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YWCA 여성평화 순례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했다.

한국YWCA는 창립 95주년인 2017년에 “여성평화순례-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시작하였다. 첫 해 한라산으로부터 시작하여 2018년 지리산, 2019년 태백산을 등반하였고, 코로나로 모임이 어려웠던 2020년과 2021년에는 ‘홀로걷는 평화순례’를 진행하였다. 95명으로 시작한 평화순례자는 매해 창립 주년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더하여 지난 6년간 총 585명이 되었고, 일반 순례자를 포함하면 약 1천 여 명이 평화순례에 참가하였다. 북한민, 조선족, 고려인, 재미동포 등

을 포함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국경을 넘은 자매애를 나누고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확인하였으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소명과 염원을 나누며 공동 행동을 결의하고 실천하였다.

95주년부터 진행해온 이 순례 걸음의 마지막 코스인 100주년의 순례길은 북녘땅을 눈앞에 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총 32개 지역에서 100명의 평화순례단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남북의 문이 닫히고 DMZ마저 걷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는 기도의 걸음을 함께 걷는다, 우리 여성들의 걸음이 큰 바람을 일으켜왔던 것처럼, 우리의 순례가 전쟁으




로 황폐화된 곳에서 희망의 북소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뒤이어 올해 동시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광주YWCA, 서울YWCA, 한국YWCA연합회의 실무자들이 여성평화기도문을 낭독하였으며, 2022년 YWCA 여성평화선언문을 선포하였다.

2022 여성평화선언문에서는 “지난 6년간 북한민, 조선족, 고려인, 재미동포 등을 포함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국경을 넘은 자매애를 나누고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확인”하였으며, “이 여성평화순례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목적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순례임을 깨닫고 성찰하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였음”을 고백하였다. 또한 “침략과 테러, 식민통치와 탄압, 분단과 혐오가 만연한 세상에서 한반도 여성들이 각국의 여성들과 힘을 모아 각 지역에서 평화의 노래를 만들어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평화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불의함의 벽을 허물고 정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고, “우리는 집, 고향, 나라의 경계를 넘어 걸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의 삶을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들”로서의 길을 다짐하였다.

평화순례 코스는 평화를 만나다, 평화를 바라보다, 평화를 꿈꾸다, 평화를 의지다의 총4개의 포스트로 구성되어,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여성평화선언문을 낭독하고 평화의 메시지와 함께 사진촬영을 하는가 하면 평화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달하고 기도 순례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100명의 참가자들이 그룹별로 차례로 진행하였다.

마지막 순서에는 대형 한반도 깃발을 펼치고 ‘100인의 평화순례단’이 우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화해와 평화를 의미하는 조각보의 다양한 색상을 우산으로 펼쳐들어 한반도를 표현해내었으며, 곧이어 노랑과 파랑의 우크라이나기를 표현해내어 전쟁의 종식과 회복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나타내었다.

한국YWCA는 100명의 평화순례단과 함께 새로운 100년, 정의로운 평화의 길을 다시 떠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평화순례자로서 정의·평화·생명을 향한 걸음을 지속할 것임을 결단하였다. 

글·편집실

100명의 평화순례단과 2022년,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2022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국제여성평화포럼과 2022 YWCA여성평화 순례를 통해 2017년 시작된 YWCA 여성평화 순례를 마무리했다. 새로운 100년의 한반도 평화비전을 확립하여 세계YWCA 회원국들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향한 여성들의 메시지를 전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22 YWCA 여성평화선언문

새로운 100년, 정의로운 평화의 길을 다시 떠납시다.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 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사편85:13)”

오늘 한국YWCA는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며 여성평화 순례의 길을 다시 걷습니다.

창립 95주년부터 우리는 한반도의 아픔이 서린 땅, 한라산과 제주, 지리산과 광주, 태백산과 사북을 순례하였고, 전 세계 팬데믹 코로나 속에서는 홀로 걷기를 통해 서로의 지지와 연대를 확인하며 순례의 길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585명의 평화순례단을 비롯한 1천 여 명의 참가자들이 통일 한반도를 향한 순례자로 결단하였으며, 북한민, 조선족, 고려인, 재미동포 등을 포함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국경을 넘는 자매애를 나누고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평화순례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목적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순례임을 깨닫고 성찰하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전쟁과 분쟁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견제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결속을 만들어냄으로써, 한반도에도 신냉전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70여 년간의 오래된 한반도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물결을 이루어내려는 국내 및 세계 시민사회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지금 남북의 문은 닫히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는 다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략과 테러, 식민통치와 탄압, 분단과 혐오가 만연한 세상에서 각 국의 여성들과 힘을 모아 각 지역에서 평화의 노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갈 때 도래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둘러싼 자연, 그리고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 속에서 정의로운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임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불의함의 벽을 허물고 정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집, 고향, 나라의 경계를 넘어 걸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의 삶을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자리잡을 수 없기에 우리는 정의를 향해 평화를 염원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평화 순례자로서 정의-평화-생명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것을 결단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1. 우리는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며, 전쟁을 종식하고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1.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며 남북 및 세계 여성들과 손잡고, 한반도를 평화의 축으로 하는 운동을 전 세계로 확장해나간다.
- 1. 우리는 통일 한반도의 민주적인 공동체 실현을 위해 일상의 평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성과 평등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힘써 노력한다.

2022년 7월 7일

YWCA 여성평화 순례와 포럼
2022 100주년 평화순례단 일동

기후불평등 너머 광야 이대로 살 수 없다

|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지난 8월 초, 115년 만의 폭우가 쏟아졌다. 낮은 곳부터 물에 잠겼다. 물이 차오른 반지하방에서 장애인, 아동, 여성 노동자가 희생되었다. 쏟아져 들어오는 폭우 속에서 현관도 창문도 열리지 않는 반지하방은 감옥이 되어 이들을 가둬버렸다. 또 다른 감옥이 있었다. 대우조선 노동자가 좁은 철제구조물을 스스로 용접하고 그 안에 들어갔다. 51일 동안 다리조차 펴지 못한 채 움푹 달짝 할 수 없는 곳에 스스로를 가렸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해고된 이들을 다시 복직하라고, 평생 최저시급에 머무는 임금을 바로잡으라는 게 요구사항이었다. 하청노동자가 철창 앞에 구호를 내걸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선노동자의 철골구조물과 도시 한복판의 반지하방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불평등의 구조를 드러냈다. 불평등의 사회구조 그 아래에 있던 이들에게 허락된 공간이 바로 반지하이고, 좁은 철창 속이었다. 재난은 그 사회에 감춰있던 불평등의 민낯을 드러낸다. 재난의 고통은 아래의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되었고, 폭우의 거센 물살은 낮은 곳, 반지하방의 삶을 삼켜버렸다. 이들을 가두었던 것은, 성장과 이윤을 좇아 만든 재난의 불평등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재난의 와중에도 누군가는 이익을 챙긴다. 재난이 곧 기회가 된다. 기후위기 와중에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내세우며 새로운 시장 확장과 이익 창출에 골몰한다. 정부는 살뜰히

“민간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의 이익을 뒷받침한다. 외신에 따르면 제프 베조스, 빌게이츠, 마이클 블룸버그 등의 억만장자는, 기후위기로 녹아내리는 그린란드에서 보물찾기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값비싼 광물 채굴에 막대한 자금을 투여한다는 것이다. 탄소배출의 주범인 석유회사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석유가격 급등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이 기업들에게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라고 각국에 요구하고 있다.

재난을 방지하거나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불평등은 계속된다. 폭우 피해 직후 서울시는 서둘러 반지하방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 발표 전에 정작 반지하방에 살아가는 (살 수 밖에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는 말은 없다. 지하방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확충되어야 하지만 정작 정부는 그럴 계획과 의지가 없어 보인다. 반지하를 없애려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진 결국 집값을 올린다. 반지하방은 사라지겠지만, 정작 그곳에서 살던 주민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결국 정비사업을 명분으로 소수의 건설사들만 배불릴 공산이 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탄소 산업전환이 필요하다. 석



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중심이 된 산업은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산업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산업전환 과정은 무척 힘든 과정을 수반할 수 있다. 오랫동안 일하던 직장을 누군가는 떠나야 할 것이고, 지역 주민과 하청 소상공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산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희생과 고통은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 불황을 핑계로 조선소의 비정규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에 쫓겨나고 임금이 삭감된 것처럼, 탈탄소 산업전환의 고통을 불평등의 사다리를 타고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미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던 지난 정부는 산업계를 향해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고, 현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는 산업부문의 감축량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바로 핵발전 확대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과 오염은 외부로 떠넘기는 에너지인 것이다. 핵발전소든 석탄발전소든 서울 강남에 지어질리 없고 핵폐기물이 재벌 사옥 지하에 묻힐리 없다. 위험을 떠넘길 더 많은 지역을 찾으려 할 것이고, 석탄, 석유, 우라늄 등 더 많은 자원을 파헤칠 땅이 필요할 것이고, 농민, 비정규노동자, 여성, 비인간동물, 미래세대에 더 많은 위험을 떠넘길 것이다. 결국 경제성장과 이윤을 위한 희생과 위험은, 이 사회의 불평등의 계단 아래로 흘러가게 된다.

기후위기는 기후재난으로 다가오고 있고, 기후재난은 불평등하다. 불평등은 기후위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이다. 소수의 기업과 소득 상위 계층의 더 부유하고 사치스런 소비를 위해 대부분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재난'이 되는, 이 현실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하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지구가 아프다', '우리모두의 책임이다'라는 명제를 넘어서야 할 때다. 심각한 기후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기후재난이 누구에게 더 가혹한지를 밝혀야 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온

실가스를 내뿜지 않고서는 굴러가지 않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인식해야 한다. 그 시스템으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고 있고, 누가 희생되고 있는지를 봐야한다. 기후위기와 기후재난 앞에서 이제 '기후정의'를 이야기하는 이유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외쳤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산불, 폭염, 식량위기, 생태계 붕괴는 이제 누군가에게 생존의 위기, 삶 그 자체의 위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불평등한 기후재난 앞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 촘촘하게 구조화된 불평등이라는 감옥, 그 창살을 끊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6월 '9월기후정의행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국 7천여명이 모인 첫 기후대중행동을 진행하였다. 코로나로 멈췄던 3년을 보내고, 올해 다시금 행동을 준비한다.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의 이름으로 수 만 명이 광화문일대에 모인다. 불평등이 만든 촘촘한 쇠창살의 감옥에서 나와 광장으로 향한다. 탈출이 어렵고 두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나가자고 말하자. 한 번의 행동으로 세상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광장은 광야일지 모른다. 성경에는 파라오가 지배하는 피라미드 계급 사회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간 히브리 노예들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며 불평하기도 했지만, 광야로 한발짝 나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해방도 자유도 없었을 것이다. 히브리 노예들은 긴 광야생활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새로운 계약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2019년 9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거치며 난생 처음 집회를 경험했고, 난생처음 기후운동의 첫 발을 디디게 되었다. 청년들을 종종 만난다. 2022년의 9월도 그러할 것이다. 함께 모이고, 함께 소리치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함께 걸어갈 것이다. '사랑과 연대라는 백신' (송경동 시인)을 함께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평등과 기후위기 한 복판에서도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기를 희망한다. 이 희망은 광야를 걸어갔던 출애굽의 히브리 노예들의 그 것과 닮았을 것이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땅과 생명을 살리는 여성농민

|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더이상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의 결과인지 아닌지 의심을 품거나 회의를 할 수 있을까. 전세계를 휩쓰는 폭염, 가뭄, 산불, 집중호우들은 해마다 그 심각성이 두려울 정도로 커져간다. 여러 나라들에서 산불이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지독한 가뭄으로 거대한 호수가 바닥을 드러낸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날아가다 탈수로 떨어져 죽고, 살아있는 나무가 불이 붙는다. 유럽이나 파키스탄, 인도처럼 40도 넘는 폭염을 용케 피했던 우리나라도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집중호우로부터 벗어나진 못했다. 남쪽 지역에는 지독한 가뭄이, 집중호우가 난 지역에선 애써 키운 작물이 다 망가지고 흠들이 유실되었다.

기후위기가 가져온 재난은 대한민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인 서울 강남도 피해가진 못했지만,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의 비극이 보여주듯 그 재난이 가져온 상처와 고통의 크기는 평등하지 않다.

기후위기로 가중되는 여성농민들의 고단한 삶

해가 더해질수록 종잡을 수 없어진 기후 변화 때문에 땅을 보듬고 땅을 일구며 여러 가지 다양한 작물을 키우며 살아가는 소농들, 특히 여성농민들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식량자급률이 45% 정도이고 더구나 곡물 자급률은 20%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폭염 속에서도 땅을 일구며 먹거리를 생산하는 소농들, 특히 대다수의 여성농민들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한하다. 그들은 막대한 양의 농약과 비료,

제조제를 쓰는 거대한 산업농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배출을 낳는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시스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명 순환의 법칙과 생태적 다양성을 살려내면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려 노력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생태적인 농업을 통해 만들어진 건강한 토양은 배출된 온실가스의 3분의 1을 흡수하고 격리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인도의 생태학자 반다나 시바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온실가스 총량 중 40%가 화석연료에 기초한 글로벌한 산업농시스템에서 배출되고 있지만,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양의 30%만이 산업농에서 나온 것이고 70%는 바로 소농들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이 글로벌 농업시스템이 가중시켜온 기후위기에 의해 소농들, 특히 여성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진 가뭄과 폭우는, 대규모의 농약과 비료, 기계를 덜 쓰고 지역의 기후와 풍토, 오랜 경험과 지혜에 기반해 농사를 지어온 여성 소농들의 애씀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폭우로 토양이 쓸려나가고 고추 탄저병, 감자 잎마름병 등 작물들이 병충해를 입어 수확량이 줄어들어 생산비조차 못 건지기 일쑤다.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에 필요없던 가림막과 지지대를 설치하느라 돈과 노동력이 더 필요해지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더 곤궁해지고 가뜩이나 고단한 노동이 더욱더 고단해진다.

그뿐 아니라 폭염과 병충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야외에서



<출처:한국농정>

일하는 여성농민들의 건강도 더욱더 위협해진다. 기후변화로 진드기나 들쥐 등이 옮기는 전염병과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워졌으며 병충해로부터 작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농약 등의 사용이 더 빈번해져 화학약품 중독 위험도 커진다.

한국의 농업에서 여성농민들은 그 수와 노동력이 반 이상 되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언제나 '농촌여성', '농가 주부', '생산 보조자'로 칭해졌다. 실제 여성농민들은 농사일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아이돌봄, 노인돌봄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도 농지를 소유한 경우는 37.3%에 불과하고 여성농민 4명 중 1명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촌 지역사회에서 이장 선거나 마을 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여성의 대표성도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음식 장만, 마을 청소, 어르신 돌봄 등을 거의 전담한다. 조사 결과 이러한 노동에 여성농민 48.6%가 무료로 수행한다.

한편 농촌사회에서 여전히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여기거나 비하하는 성차별적 문화 또한 견고하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흥성군 지자체의 마늘광고나,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농기계 광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농민들을 둘러싼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

올 여름의 엄청난 집중호우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었지만,


불평등한 현실은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중시킨다,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는 성차별적이고 고단한 현실 가운데서도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땅을 살리며 생물 다양성을 지켜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그들을 농사로부터 이탈하게 만들고 있다.

희망을 일구는 여성농민

최근 2년 동안 곡물가격이 50% 가량 상승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세계의 기후 변화로 식량 생산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 예측된다. 이 때문에 식량자급률이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소농들, 여성농민들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한하다.

이들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주체이고, 땅을 살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주체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삶이 불안과 불평등에 더욱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고 '기후를 완화시키는 주체로서의 존중이 필요할 것이다. 전국의 여성농민들은 각지에서 모여 식량주권 실현과 기후위기에 맞설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들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여성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높이고 권리를 보장하는 일, 그리고 여성농민이 해왔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보상은 기후위기 현실에서 더욱 절실했다.

반다나 시바는 지금의 기후위기를 가져온 산업농, 글로벌한 기업농으로부터의 전환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 바 있다. "우리를 먹여살리는 것은 화학비료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토양이다. 독과 살충제가 아니라 벌과 나비다. 독성 어린 단일 경작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이다. 대규모 산업형 농업이 아니라 소농이다. 세계화가 아니라 지역화다. 기업이 아니라 여성이다."

여성농민들은 점점 더 압당해지는 기후위기 현실을 살면서 오늘도 호미와 낫을 들고 논밭으로 나가 흙을 보듬고 희망을 일구어낸다. 

여성이 만들어가는 평화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반도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식민주의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은 냉전의 두 축으로 갈라져 통치되었고, 곧이어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내전으로 시작한 한국전쟁은 국제전으로 비화되었으며,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고 난 이후에야 겨우 잠정적으로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정전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이후 국제적 수준의 냉전이 한반도에서 작동하게 되면서 남과 북의 정전체제는 7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세계가 탈냉전으로 변화할 때도 한반도의 냉전은 지속되었고, 최근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 정치 질서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남과 북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지며 살아왔으며, 남북 사이의 적대와 경쟁은 단순히 국가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정체성과 삶 전반을 왜곡시키기에 충분했다.

남북 여성은 식민-전쟁-분단-탈식민이 중첩되는 굴곡진 역사를 온 몸으로 경험한 존재들이다. 물론 남성들에게도 한반도의 상황이 힘겹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전쟁과 분단 상황에 가부장제라는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에 억압에 노출되어 이중의 착취를 경험해오고 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을 비롯한 민간인이었으며, 전후 북구의 과정에서 남북의 여성 모두 구조적인 성차별과 성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만큼 남과 북이 다른 정치 체제와 경제 구조를 구축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의 입장에

서 살펴보면 남북에서의 억압은 그 밀도에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 구조는 유사하다. 예를 들어 전후 복구와 경제 발전 시기에 남한의 여성은 '양공주'와 같은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노동자로 전락하거나 엄청난 노동 강도를 저임금으로 감내하는 여공의 모습으로 대변된다. 비슷하게 북한도 여성은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동원되는 노동력이었으며, 경제난의 상황에서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존재로 호명되었다.

지속되는 '전쟁' 속 여성

전쟁은 모두에게 가혹하지만 특히 여성의 삶을 파괴한다. 한국전쟁에서의 여성의 피해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니 말이다. 남편과 아들을 전장에 내보내야 했던 고통뿐만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의 성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 김귀옥의 연구에 따르면 1951년부터 1954년 사이에 약 300 여명의 한국군 위안부가 운영되었고, 군부대 내에 위안소가 존재하거나 군인을 따라 이동식으로 위안소가 운영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을 시작으로 공론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면 한국군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일본군에 의한 전시 성폭력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모두 나서 분노하지만, 우리 스스로 전쟁을 위해서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이름의 전쟁이 되었건, 그리고 그것의 주체가 누구였던 건 전쟁이 여성을 대상으로 어떠한 폭력을 자행하는지 확인되는 지점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한국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인 정전체제가 지속되면서 미군에 의한 '위안부'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기지촌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들은 미군에 의한 구타, 살인 등에 노출되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민족적 수치로 여겨지면서 한동안 논의의 장에 등장하지 못했다. 여성 단체의 끈질긴 노력과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성과로 인해 2014년이 돼서야 미군 '위안부'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 폭력에 대한 싸움을 시작하기도 했다. 미군 '위안부'의 사례에서 더욱 끔찍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직접 나서 성병 관리와 통제 등을 담당했다는 점과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던 것, 이들을 달리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로 교육시키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 온 캐서린 문에 의하면 미군이 주둔했던 다른 곳에서는 한국과 같은 광범위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다. 유독 한국에서 광범위한 성폭력이 이뤄진 이유는 일제 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공창제와 일본군 위안부-한국군 위안부 등으로 이어져 오는 전시 폭력이 전쟁이 멈춘 이후에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² 즉, 식민과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한반도에서 여성을 향한 폭력은 지속되었으며, 이는 강간이나 물리적 폭력부터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성차별과 성폭력까지 확산되어 작동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쟁 상황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국제 사회는 여성들이 전쟁이나 비평화적 사회에서 수많은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0년에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을 통해서 안보 문제에서의 여성의 보호 및 성주류화를 강조하였다. 1325 결의안은 전쟁과 같은 무력 분쟁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은 크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으며,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도 여성을 향한 폭력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평화 구축 및 재건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주류

화를 이뤄내야 하며, 분쟁해결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이 모든 의사 결정 수준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에는 평화, 안보 의제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여성의 모든 사회, 경제적 권리를 향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는 전쟁 상황을 협소하게 정의하기 보다는 일상에서의 다양한 폭력적 상황에 대한 성주류화 관점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과 환경 및 기후 변화에서 여성의 역할, 참여, 보호 등이 주요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고,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 해결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기도 한다. 평화와 안보 의제가 기존의 전통적 안보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보를 포함하는 비전통 안보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만드는 평화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는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 구호와 재건(relief and recovery)를 강조하면서 외교, 국방, 개발협력 정책 전반의 성주류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후에 1325호의 후속 조치로 제시된 결의안과 더불어 각 국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안보리 결의안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4년 제1기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었고, 2017년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국가행동계획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1기 국가행동계획(2014-2017)까지 지속되고, 제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이 수립되어 이행되었으며, 2021년 2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3기 국가행동계획(2022-2024)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국가행동계획의 한계도 분명해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행동계획이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행에 관련한 세부적인 이행 체계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국가행동계획이 민관의 협

1) 김귀옥,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의 공조』, 선인, 2020.

2) 캐서린 문 외, 『위험한 여성: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삼인, 2001.

C - 지역생활커뮤니티 (Local Lifestyle Business)

김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팀장·(주)로컬프렌들리 대표

YWCA청년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로컬프렌들리(Local Friendly)는 초기교회공동체 교제(행2:46)와 YWCA의 지역운동, 청년성에 기반을 둔 회사로 환대(Hospitality)와 휴먼터치(Human Touch)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의 커뮤니티를 디자인한다. 현재 군산 구(舊)도심에서 '커뮤니티호텔'과 '우리술(전통주) 보틀샵'을 운영하며 외지인이 군산을 여행처럼 살길 바라고, 지역민들이 계속 살고 싶은 군산이 되길 꿈꾸며 커뮤니티를 기획한다. 2022년에는 YWCA 100주년을 맞이하여 YWCA가 100년간 지녀온 사회적 가치의 비즈니스화, 지역과 청년의 지속가능함을 위한 고민의 여정을 총 6번의 글을 통해 연재한다.

교제(koinonia)와 연대(allelon)

사도행전 2장 41절-47절은 교회 공동체의 원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다. 사도들을 통해 예수의 말씀과 삶이 계속 전파됐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 새로운 삶의 관계를 펴뒀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1)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2)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눴다. (3)밥상도 함께 나누며, 기존의 혈연으로 제한된 가족을 넘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뤘다. 그리고 (4)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 공동체를 본 사람들이 놀라 경외감을 가졌을만큼 당대 일상적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었다. 이 공동체는 더 나아가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했다(행4:32-37). 초기 교회는 '예배 공동체'에 한정되지 않고 교제(koinonia)가 있는 '삶의 공동체'로서 예수의 말씀과 삶을 재현했다.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의 저자 게르하르트 로핑크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분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셨는가'의 답을 예수에게서 찾아야하며 이것이 바

로 참교회의 모습이라 주장했다. 사도 바울은 '교회로 사는 방식'을 설명할 때 "서로가 함께"(kai allelon)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서로를 위하여 같이 걱정하고(고전12:25), 서로 화목하고(살전5:13), 서로 선을 행하고(살전5:15),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갈5:13), 서로 남의 짐을 져 주고(갈6:2), 서로 사랑으로 참아 주고(엡4:2), 서로 죄를 고백하고(약5:16), 서로 용서하며(골3:13),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약5:16), 서로 친교를 나누며(요일1:7), 서로를 건설하는(살전5:11) 사람들의 이름이 '교회'다" 그만큼 상호작용하는 '연대(allelon)'가 초기교회공동체의 중요한 가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초기교회공동체 가치를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로

로컬프렌들리는 초기교회공동체 교제와 YWCA의 지역운동, 청년성에 기반을 둔 회사로 '환대(Hospitality)'와 '휴먼터치(Human Touch)'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의 커뮤니티를 디자인한다. 환대와 휴먼터치 가치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초기교회공동체의 중요한 핵심가치였던 '교제'와

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민간 협력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행동계획에서 민간이 수행하는 역할이란 자문이나 용역 사업 정도에 머물러 있고, 이는 안보와 평화 의제가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1325 결의안의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 분명하지만 남한 여성들의 동의와 참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뼈아프다. 이는 평화, 안보 의제가 여전히 여성들의 인식과 삶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여성들도 각자의 위치의 성평등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안보와 평화라는 역사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제도화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평화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부재할 경우 평화, 안보 의제는 또다시 남성중심적인 프레임에서만 다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여성이 만드는 평화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여성, 안보, 평화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간안보적 접근을 통해 성평등과 성주류화가 안보와 평화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여성계에서 안보와 평화가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성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직장, 가정, 일상 등에서의 성폭력 문제나 성평등 문제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전쟁과 안보라는 맥락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폭력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안보와 평화에 대한 무관심이 상당하는 점은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이는 여성계 내부의 세대 간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쟁이나 안보 문제가 일상의 성폭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취급되어 왔던 것도 문제적이다. 성주류화를 통한 평화 구축이 지향하는 바는 일상에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쟁과 안보 불안과 같은 정치적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까지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들의 평화 역량 강화를 통해 인간 안보적 위협 상황을 타계하여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들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상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들 사이에는 다양한 경험이 존재하며, 이들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위치도 상이하다. 인종이나 민족 뿐 아니라 계급, 교육정도, 세대, 지역까지 다양한 차이들이 여성들의 경험과 의식의 차이를 생산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강조했던 것처럼 교차성에 주목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여성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위치성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여성이라는 존재로 공유되는 정체성과 경험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 체계를 연대를 통해 공유하고 서로의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보와 평화의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안보리 결의안 1325가 만들어지고, 각 국에서 국가행동계획이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평화 영역에서의 성주류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한데 국방, 안보, 외교 분야에서 여성 참여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진행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기기 어려운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 인류적 위기 상황이었던 팬데믹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젠더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서라도 안보 영역에서의 여성주의적 개입이 필요하며, 평화라는 상태가 국가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여성을 포함한 인간 모두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한반도와 같은 상황은 더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여성들의 삶과 연동된 평화란 한 차원 높은 수준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여성주의적 접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이 체감하는 평화야말로 우리가 만들어가야만 하는 평화이기 때문이다. 

1) 최형묵(천안살림교회 목사) 22.07.31 주일 공동예배 설교 참고
2) 백소영(강남대 교수, 한국YWCA연합회 이사)는 19.08.02 성서한국전국대회 '우리, 서로를 건설하는 이름' 강연에서 바울이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서로 함께'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가치였다고 설명했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주식회사(酒食會社)로컬프렌들리

‘연대’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르침을 받고, 예배하고, 공동소유와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는 식구(食口)이며 나아가 가난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생활 공동체였다. 즉, 오늘날 이른바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등 마을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사업(Community Business)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 조건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갖춰진 공동체였다.³

로컬프렌들리는 초기교회 생활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로 기업문화, 커뮤니티 공간과 콘텐츠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창업자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고객에게 제안하는 사업 모델이 바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다. 이 모델은 대량생산되는 제품과 다르게 특정 라이프스타일에

특화된 브랜드를 제안한다. 이케아, 스타벅스, 애플 등 글로벌 생활 산업 브랜드는 모두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다. 이들 브랜드가 성공한 가장 큰 요인은 진정성으로, 특정 라이프스타일을 일방적으로 선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창업자의 철학과 조직 문화에 내재되어 기업 문화로 표출되어야 한다.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안에서도 지역을 활용하는 유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①기존의 지역 문화를 활용하거나 ②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조하는 기업이다.⁴

군산안에서는 교제를, 군산 밖에서는 연대를

로컬프렌들리의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는 위 두 가지 유형의 복합으로 ①군산이라는 로컬리티와 ②초기교회 커뮤

3) ‘사회안전망’이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한다. 기본소득제로 상징되는 ‘사회안전망’이 일단 구축되면, 공동체 구성원마다 서로 믿고 남을 도울만한 생활의 여유가 생겨 신뢰, 협동, 연대, 규범,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은 저절로 생성, 축적될 것이다. 그런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공동체는 자생적으로, 자조하고 자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정기석, 『사회안전망』 위에 ‘사회적 자본’, 단디뉴스, 20.10.15 내용 중
4) 모종린, 『나이키와 이케아 공통점은 라이프스타일 기업』, 조선일보, 20.12.04, 오피니언/전문가칼럼

니티의 가치의 대안적 문화를 결합한다. 군산은 역사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풍부한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도시다. 수탈의 역사도 있지만, 호남 최초의 3·1만세운동과 같은 해방의 역사도 함께 지니고 있다. 바다, 섬, 호수, 강 등 향유할 수 있는 생태환경도 가득하다. 실제 군산은 예로부터 중국인, 일본인,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전국 각지의 사람들까지 이방인들의 들어오고 나감이 빈번한 동네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다채로운 이야기가 골목마다 깃들여 있는 매력적인 도시다. 이러한 군산의 스토리 안에서 로컬프렌들리의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군산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교제(Koinonia)’를, 군산을 떠나는 이들에게는 군산을 기억하고 언제든 올 수 있도록하는 느슨하지만 언제든 상호작용하는 ‘연대(allelon)’를 제공한다.

교회 밖, 지역 안에서의 커뮤니티

교회가 참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나라는 공동체(Community)다. 한국YWCA는 이 하나님나라 실현의 실천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로컬프렌들리는 교회밖, 지역 안에서 하

나님나라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재생’과 ‘커뮤니티(공동체)회복’의 미션을 이룬다. 공동체(Community)는 식탁의 교제가 있는 주의 만찬, 성찬식(Communion)과 같은 어원에서 유래했다. 그렇기에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함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밥상공동체’, ‘식탁공동체’로 해석했고, 주식회사의 ‘주식(株式)’을 ‘주식(酒食)’으로 바꿔,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함께 사는 생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비즈니스로 풀고자 했다. 로컬프렌들리의 커뮤니티가 지역의 모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제와 연대의 가치를 실천한 초기교회공동체 선배들과 지역여성커뮤니티를 위했던 YWCA 선배들의 뒤를 이어 공동체회복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우리가 운영하는 공간과 콘텐츠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를 담고,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일상에까지 녹아들 수 있도록 한다. 교회안에서 경험케하고 선취하게 해야 할 하나님나라를 교회밖 지역에서, 로컬프렌들리의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한다. 이것은 홀로 생존하기 위한 수직적 번영과 확장의 방식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수평적 방향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긴 여정이 될 것이다.



재운영을 준비하는 군산시민문화회관에 모인 YWCA 청년 회원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커뮤니티프로그램 '동네화단을 가꾸기'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커뮤니티프로그램 '손으로 막걸리 빚기 체험'

FOR ME족

| 대학·청년YWCA

2022년 현재 20~30대를 우리는 MZ세대라 부른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에 태어난 Z세대를 아우르는 말이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다양한 소비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번 청년토크는 MZ세대인 대학·청년YWCA 회원들과 소비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호 역시 참가자들 이름은 익명으로 쓴다.

너네는 돈을 어떻게 모아?

초초 : 나는 이번에 청년적금 들었어. 일반 예적금은 이율이 별로 안높는데 이건 그래도 좀 높아서 좋은 것 같아.

땡이 : 나도 그거 들었는데 대상자가 좀 까다로워서 가입 못한 친구들도 많더라.

구름 : 나는 주식해. 요즘은 주식장이 안좋지만 그래도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주식해서 수익금 꽤 많이 벌었어.

땡이 : 우와. 나도 주식하고 싶는데 어려워서 쉽게 못하겠더라.

구름 : 요즘은 은행 이자가 워낙 적으니까 돈 굴리려면 주식 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

초초 : 맞아. 월급 받아서 꼬박꼬박 저축만 해서는 집은 커녕 차도 못살걸?

구름 : 그치. 예전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많이 했잖아? 이제는 '티끌 모아 티끌이야'

땡이 :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초초 : 나는 주식개미라서 친구 따라 조금 넣어봤는데 지금 물려있잖아. 내 돈 어떡해.

나의 소비

땡이 : 이번에 신발 새로 질렀잖아. 이거 한정판인데 당첨돼서 샀어. 나는 한정판 신발 모으는 거에 돈을 많이 써.

FOR HEALTH (건강)
ONE (싱글족)
RECREATION (여가)
MORE CONVENIENT (편의)
EXPENSIVE (고가)

포미(FOR ME)란?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은
다소 비싸더라도 과감히
투자하는 소비 행태

<출처 : 콘텐츠기업지원센터경남.네이버 블로그>

초초 : 이 신발 나도 봤는데 리셀 가 엄청 올랐더라?

땡이 : 맞아. 팔지 말지 고민하다가 그냥 신기로 했어.

구름 : 완전 플렉스네. 팔았으면 3배는 이득 봤을 텐데 아쉽다.

땡이 : 나는 내가 일한만큼 써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라 비싼 물건 사는 거 좋아해.

땡이 : 그런 애들 많더라.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하고 취미생활도 못하니깐 그 돈 모아서 명품 많이 사더라고.

초초 : 나는 이번에 '무켓팅' 성공했다! 몇 번을 실패했는데 드디어 성공했어.

땡이 : 무켓팅이 뭐야?

초초 : 무화과 티켓팅이야.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농산물 티켓팅 하는 게 유행이잖아. 디자인도 예쁘고, 맛도 좋고, 스토리텔링까지 좋은 농가의 농산물을 인스타그램으로 직거래하는 거야.

땡이 : 농켓팅이라고 그러지? 없어서 못먹는다는데 그게 당첨된 거야? 대단하다.

구름 : 나는 골고루 지출하는 편인데 최근에 '술담화'를 구독하기 시작했어. 정기구독 신청하면 전통주를 매달 보내주는 데 너무 재밌어.

땡이 : 나는 평소에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많잖아. 시간만 나면 집 근처에 있는 제로웨이스트샵에 들러서 신상 구매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초초 : 요즘 FOR ME족, 셀프 기프팅(self-gifting)이라는 말도 나오잖아.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만족을 위한 소비를 주로 하는게 우리의 소비 특징인 것 같아.

미닝아웃(meaning out)

땡이 : 땡이 너 제로웨이스트에 소비를 많이 한다 그랬지? 그

걸 미닝아웃 이라고 한대. 너처럼 니가 가진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하는 걸 말해. 다른 물건보다 가격이 비싸거나 편리성이 떨어져도 가치를 위해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지.

땡이 : 맞아. 삼푸바, 린스바로 바꾼 지 꽤 됐는데 여전히 플라 스틱통에 든 것보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환경보호를 위해 참고 쓰는 거 같아.

구름 : 그래서 요즘 물건살 때 기업이 가진 ESG경영실천 여부를 중요하게 보잖아.

초초 : 요즘 선한 행동한 가게에 가서 '돈쫄'도 많이 내주잖아. 이런 것도 미닝아웃이라고 하더라.

땡이 : 나도 돈쫄내 본 적 있어. 우리집 근처에 치킨집 사장님이 매달 보육원에 무료로 치킨 준다는 이야기 듣고 이제는 거기서만 시켜먹잖아.

땡이 : YWCA활동하면서 공적여행도 가보고, 제로웨이스트 운동도 하잖아. 우리 운동 자체가 미닝아웃이기도 하네.

인스타그램머블(Instagramable)

초초 : 너희 전부 인스타그램 하지?

모두 : 당연하지.

땡이 : 나는 일상 계정도 있고, 제로웨이스트샵 물건만 올리는데도 있어.

초초 : 땡이처럼 나의 소비를 SNS에 올려서 정보 공유를 해주고, 좋아요랑 댓글로 소통하면서 나의 소비에 뿌듯함을 느끼는 게 요즘 우리의 소비 트렌드이지.

땡이 : 맞아. 아까 초초가 무켓팅한 것도 인스타그램이고, 내가 한정판 신발 구매 정보를 얻는 것도 인스타그램이야. 요즘은 소비랑 관련된 건 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

구름 : MZ세대는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는 게 소비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나의 소비를 자랑하고 인정받는 것까지를 소비라고 생각해.

땡이 : 들어보니깐 맞는 것 같아. 모든 소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어서 사는 게 많아.

나를 위한 소비

땡이 : 내가 한정판 신발을 많이 사니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사치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그만큼 팔기도 많이 팔거든.

초초 : 기성세대들이 우리를 보면 무분별하게 소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땡이 : 근데 내가 보기에 우리는 내가 소비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다른 쪽은 충분히 아낀다고 생각해. 나는 먹을 걸 좋아해서 식비에 돈을 많이 쓰는 데 그만큼 옷이나 신발을 안사거든.

구름 : 우리가 소비하는 걸 워낙 SNS에 티내고, 방송이나 인터넷에서도 MZ세대의 소비를 겨냥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봐.

초초 : 어른들이 생각하는 소비는 단순히 돈을 쓰는 거라면 우리의 소비는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 그게 미닝아웃이 될 때도 있고, 플렉스가 될 때도 있는 거지.

땡이 : 나는 명품을 좋아하지만 중고로도 많이 사고, 유행이 지나면 빨리 팔아서 처분하기도 해. 나름 적절하게 잘 소비하는 것 같아.

땡이 : 제로웨이스트 소비도 그냥 돈을 쓴다기보다는 내 취미인 것 같아. 나의 소비를 통해서 내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자존감도 높이고, 환경도 지킬 수 있잖아.

초초 : 소비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게 바로 MZ세대 소비 트렌드인 것 같아! 🌱

1) 리셀(resell) : '다시 판다'는 의미로 한정판 제품 등 인기 있는 상품을 구매한 뒤 비싸게 되파는 행위다. 주로 의류, 운동화 등이 거래된다. MZ세대의 재테크 방식으로 활용되며, 리셀을 하는 사람을 리셀러라고 부른다.
2) 미닝아웃(meaning out) : '신념'이라는 뜻의 미닝(meaning)과 벽장 밖으로 나온다는 커밍아웃(coming-out)이 합쳐진 단어로 나의 가치관과 신념 등을 나타내는 신조어
3) ESG :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를 말한다.
4) 인스타그램머블(Instagramable) :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함'이라는 뜻의 조어다. 인스타그램머블이 젊은 층의 새로운 소비 기준이 되면서 외식, 여행, 쇼핑, 전시 등 다양한 업계에서도 이를 마케팅의 중요 키워드로 삼고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의 근원

| 김선영

문화평론가, 좋은미디어콘텐츠상 심사위원



시작은 미미했다. 자폐스펙트럼을 지닌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장애 소개에 대한 편견, 신생 케이블 채널의 낮은 인지도, 소위 ‘한류스타’가 거의 없는 캐스팅 등 여러 요인으로 첫 회 시청률이 1퍼센트가 채 안 되는 0.948에 머물렀다. 하지만 반응은 빨랐다. 첫 방송이 나가자마자 순식간에 호평의 입소문이 퍼진 드라마는 다음 회부터 시청률이 꾸준히 배로 뛰는 기적의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최종 16회에는 17.534퍼센트의 시청률을 거뒀다. 올해 방영된 미니시리즈 가운데 최고 기록이다.

글로벌 흥행지수도 경이롭다. 넷플릭스에도 동시 공개된 드라마는 방영 첫 주만 해도 시청 순위 10위권 밖에 있다가 한 주 뒤에 곧바로 비영어권 시청 순위 1위에 올랐다. 비영어권 1위 6주 기록을 세운 드라마는 결국 8월 셋째 주, 영어권까지 포함해 세계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한다. 심상치 않은 돌풍에, 미국 CNN에서는 ‘제2의 <오징어게임>’이 될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세계 최대 영화·TV 정보 사이트 IMDB에서도 9점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 중이다.

이보다 유의미한 지점은 드라마가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력에 있다. 유니버스 법정드라마의 포맷을 취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을 지닌 변호사 우영우(박은빈)가 담당하는 다양한 공익사건과 재판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모순과 그늘을 녹여냈다. 그러면서도 이 어두운 소재를 따뜻한 동화풍의 색채로 감싸 안아 생각이 다른 이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종종 지

나친 판타지적 색채의 한계도 발견되곤 했으나, 그 따뜻한 시선을 빌려 사회적 문제를 드라마 바깥 공론화의 장으로 올려놓은 것은 이 작품의 분명한 미덕이다. 인기가 신드롬으로 확장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가장 진일보한 성취는 드라마 속 장애에 대한 묘사다.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 자체가 희소하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전에도 호평과 대중성을 모두 얻은 사례는 있었다. 조승우 주연의 실화 모티브 영화 <말아톤>, 주원이 서번트 증후군 소아외과 의사를 연기한 드라마 <굿닥터>(KBS)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묘사의 전형성이다. 몇 안 되는 작품 수에도 불구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주인공들은 대부분 천재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 <굿닥터>의 박시은(주원)은 정밀검사를 거치기도 전에 환자들의 병명을 척척 진단해내는 천재의사였고,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의 진태(박정민)는 처음 듣는 곡도 완벽하게 연주해 내는 서번트 증후군 피아니스트였다. 극적인 이야기를 위해 자폐인을 천재로 그려내는 드라마 클리셰는 실제 자폐스펙트럼 환자들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한계로 지적받아왔다.

읽은 책은 모조리 기억하는 천재 변호사가 주인공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품에 대한 호평과 더불어 클리셰에 갇힌 장애인 캐릭터 묘사라는 비판이 공존했다. 그러나 이 작품은 3회에서 또 다른 자폐스펙트럼 캐릭터를 등장시켜 기존의 한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영우가 일하는 로펌 한바다에 형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폐인 사건의 의뢰가 들어온다. 상사가

같은 자폐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배당하자, 영우는 이를 제기한다. “자폐의 공식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스펙트럼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자폐인은 천차만별입니다. 꼭 고래처럼요. 김정훈 씨는 정신연령이 6~10세 정도인 중증도 자폐인인데 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시다.” 영우의 말대로 자폐인 뿐 아니라 장애에도 다양한 성격이 있음에도, ‘장애인’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개성적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비장애인들의 한계를 겨냥한 말이다.

이 같은 편견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비장애인인과 격리시키고 통합을 가로막는 큰 벽으로 작용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작품 속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인 것은 이 벽을 뛰어넘기 위한 ‘장애인의 개성과 다름’에 대한 묘사였다. 이러한 묘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를 다룬 10회에서도 등장한다. 많은 지적장애인 여성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타당하지만, 장애인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만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를 겨냥한 우영우의 질문은 충분히 유의미하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이처럼 자폐인 당사자의 명확한 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다름과 개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장애 소개 드라마의 진일보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시청자들이 작품이 던진 질문을 현실로 끌고 나와 논의를 이어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예산 제도 개선을 위한 시위 이슈를 비롯해 장애인들의 현실을 돌아보는 기사와 언급량이 부쩍 증가했다. 무엇보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당사자발언이 늘어났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천재 자폐인 변호사는 판타지일 뿐 장애인의 현실은 드라마와 다르다’라는 비판조차 작품이 물꼬를 튼 장애 담론의 자장 안에 있는 것이다.

극분을 맡은 문지원 작가는 전작인 영화 <증인>에서도 자폐스펙트럼을 지닌 여성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바 있다. 우영우는 당시 변호사를 꿈꾸었으나 자폐인이라는 현실 때문에 법정 증인이란도 되고자 했던 주인공 소녀 지우(김향기)의 어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영화 결말에서 특수 학교를 택했던 주인공이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디더 공존



을 모색하는 이야기가 드라마인 것이다. 드라마에 대한 호평과 인기에는 이 같은 작가의 진정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이 밖에도 우리 사회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을 보여준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차별 문제는 가장 꾸준한 주제였다. 우영우가 로펌 한바다에 입사한 뒤 처음 담당하게 된 사건도 가부장적 남편 때문에 일평생 고생한 노년 여성 사건이다. 영우는 남편 살인미수 인정으로 집행유예를 얻어내려는 상사에게,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될 피고인의 사정을 설득시킨다. 숨겨진 쟁점을 찾아낸 데에는 단순히 영우의 천재성 뿐 아니라 자신과 같이 약한 존재에 대한 관심이 작용했다. 딸을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북한 이탈주민 여성 에피소드, 소위 ‘자물쇠 학원’에 갇혀 밤늦게까지 공부만 해야 하는 초등학교생들의 에피소드,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여성들의 시위 에피소드에도 이 같은 시선이 드러난다.

우영우가 고래를 좋아하는 설정도 일맥상통한다. 드라마는 영우가 세상의 자극으로 고통받을 때나 갈등을 해결할 깨달음을 얻을 때 판타지처럼 고래를 등장시키는데, 이 고래는 평화와 위로의 상징일 뿐 아니라 인간에게 박해받는 약자의 상징이기도 하다. “좁은 수조에 갇혀 냉동 생선만 먹으며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쇼를 해야 하는 노예”로서의 고래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영우는 극 후반부에 돌고래 해방 시위에 참여하기도 한다. 요컨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은 그 자체로 작고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응원과도 같다. 신드롬의 근원은 바로 거기에 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을 묻다

남기평

목사, NCK 화해통일위원회

이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K)는 CBS 기독교방송과 함께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전 문재인 정부부터 남북/북남의 관계가 경색국면으로 들어선지 3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새 정부는 대북관계를 강경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반도평화포럼은 현재의 한반도의 평화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며, 우리들의 과제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2022년 한반도의 상황은 변화되었다. 대북관계를 강경노선으로 전환한 새 정부에서 이번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진행함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선비핵화 후조치이다. 여타의 보수 정권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만 가져올 뿐이었다. 불과 5년 전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이 무색할 만큼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 군사적, 정치적 긴장상태에 놓여있기에 평화의 기도가 절실할 때이다.

한반도의 위치 상,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외교와 국익에도움이 되는 외교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극단적인 방식의 특징 ‘편’ 혹은 진영에 들어가는 것은 선택지를 오히려 강제하게 만들어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빨리 들어가게 한다. 또한 대북관계와 주변국들의 관계를 지혜롭고 영리하게 끌고 나가지만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 그러니 어느 편에 들어가 어느 진영의 논리만을 고수하는 것 자체를 지양해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그만큼 어려운 함수를 풀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에, 국제사회의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고, 많은 분야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평화로운 한반도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반드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곧 세계평화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번 포럼에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야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낯선 부자 3대 세습과는 별개로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극복과 여러 쟁점에 대한 대처방식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마무리되고 상황과 상황들이 극복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북한의 붕괴설 등은 설득력을 점점 잃어가는 게 현실이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했을 때, 북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이성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랬을 때 대북관계의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설정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현재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정권의 목표는 ‘체제안정’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지만, 이미 북한이라는 국가가 안정적이기에 이것보다는 북한국가의 발전과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절대로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한국 언론에서 다루는 방식인 북한의 이미지로 인민을 희생하며 무조건적인 핵개발에만 열을 올리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



라 북한 사회도 ‘변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들끓고 있는 혐오문제나 세대갈등, 젠더갈등 역시 북한 사회에도 고스란히 녹아있고 또한 이를 벗어나고 통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법과 시행령 등이 갖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평화포럼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한인네트워킹을 조직하고자 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희망을 발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통일준비세대로 명명되는 청년지도력들의 등장이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했다. 이 시급성은 매번 나오는 이야기이나 현재 기독교평화통일운동은 세대교체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자리였다. 현 2030에 맞췄서 어떻게 한반도평화통일을 이야기하고 이 쟁점을 받아들여 할지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사회의 주된 이슈는 더 이상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다. 3% 내외 관심으로 국정주요과제에서도 아래 순위로 내려가 있음은 물론 대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고, 사안들의 대처가 쉽지 않은 결정으로 변화하

고 있으며 복잡한 이해득실이 맞닿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시민사회가 이 이슈를 끌어안고 나아가지 않는 이상, ‘민족’이라는 개념이 열어지고 이것이 정체성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때에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한반도의 ‘평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미래과제를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NCK는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와 함께 협력하면서, 이 문제를 고민할 것이다. 한반도평화문제를 고민하는 플랫폼 Ecumenical Forum in Korea를 통해서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있고, 조선그리스도연맹(Korean Christian Federation)을 파트너로 불가능하고 확실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연대하려 한다. 여전히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교류가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손을 내밀고 계속해서 연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낼 것이다.

“요즘 날씨 Y라노”

글·편집실

2022 Y-틴 전국회원대회가 8월 6일(토) (사)서울YWCA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YWCA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며 진행된 청소년 전국회원대회로 전국 20개 회원YWCA에서 대표 35명의 Y-틴 청소년들이 함께하였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기후위기로 '요즘 날씨 Y라노'라는 표제어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청소년들은 Y-틴 전국대회를 위하여 직접 '레크레이션', '기후위기 상식퀴즈', '청소년 기후강연', '기후 골든벨', '에코 키링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직접 기획하여 진행되었다.

1922년 설립 당시부터 청소년들이 주제로 참여하여 온 명실상부한 청소년 단체 한국YWCA연합회가 전국의 YWCA와 함께 8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서울YWCA 대강당에서 '2022 Y-틴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하였다. 2022 Y-틴 전국회원대회의 주제는 “기후위기”로, 일상화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Y-틴 청소년들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선정되었다. Y-틴 청소년들은 이번 대회를 위해 직접 기후위기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대회에서 직접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Y-틴 전국협의회 이선우 회장의 인사말로 개회가 시작되었다. Y-틴 서부지역 회장 김예은 청소년의 Y-틴 목적문 낭독으로 여는 예배가 시작되었고 대회에 참여한 Y-틴 청소년들이 창세기(1:1-25), 로마서(8:22-28)를 함께 읽으며 예배를 마무리하였다. 예배를 마치며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이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와 함께 성장해 온 Y-틴을 향한 인사말을 나누었다. 구정혜 사무총장은 1922년 한국YWCA가 설립 될 때부터 청소년의 주체성과 무한성을 지지해 온 한국YWCA의 청소년을 향한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100주년 Y-틴 전국회원대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더 큰 꿈을 꾸며 Y-틴 안에서 무엇이든 시도하고 만들어 가라'는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다음으로는 Y-틴 중부지역 회장 남경희 청소년, (사)세종

Y-틴 박세민 청소년의 진행으로 레크레이션이 시작되었다. 몸으로 말해요, 사회자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등의 게임 시간을 가지며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서는 Y-틴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YWCA 100주년 축하문구와 Y-틴에게 바라는 점들을 청소년들이 작성하였고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였다. 관련된 내용은 Y-틴 인스타그램(계정명 yteen192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후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사)안양Y-틴 회장 박다현 청소년과 동해Y-틴 박예원 청소년이 준비한 기후위기 상식퀴즈가 진행되었다. 평소 기후위기에 대한 간단한 상식부터 기후와 관련한 심화문제들을 풀어가며 Y-틴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사)서울Y-틴 키다리학교 회장 조하진 청소년이 'OECD 분리수거물 2위 대한민국의 가려진 진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나누어주었고, 이어서는 인천 Y-틴의 부회장이자 북부 지역 Y-틴의 총무를 맡고 있는 서유람 청소년이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두 청소년이 전달한 기후위기 강의를 들으며 Y-틴 청소년들은 함께 기후위기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앞의 두 순서를 마친 뒤 기후위기 골든벨이 시작되었다. 출제된 문제를 팀별로 상의하여 정답을 스케치북에 적어서



왼쪽의 1922년 한국YWCA 창립기념사진의 그대로 재현하여 찍은 2022년 Y-틴 전국회원대회 사진



위에서부터 차례로 기후위기 골든벨, 양말목 에코키링 DIY, 레크레이션, 직접만든 키링, 기후위기 골든벨 시상, 청소년 기후강의 활동사진

정답을 맞추는 방식으로 중간중간 사회자를 맡은 청소년들의 깜짝퀴즈로 모두 기후위기 골든벨에 집중해서 문제를 맞추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으며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력으로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동부Y-틴 이채은 청소년과 흥선희 청소년이 양말목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했다. 양말목을 활용해서 동백꽃, 목화솜, 체리, 바나나 키링을 만들어보며 Y-틴 청소년들은 서로 모르는 부분은 도와주고 알려주며 키링을 완성해갔다.

이번 회원대회에서 청소년들은 YWCA의 100주년을 기념하며, 스스로 Y-틴을 정의하고 앞으로의 100년의 기대를 나누는 100주년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 활동에서 (사)광주YWCA의 송제훈 청소년은 '모두를 위하는 Y'로, (사)대전YWCA 이선우 청소년은 '우리는 다채로운 Y'로 Y-틴을 정의하였으며, 앞으로의 100년과 관련하여 (사)인천 YWCA의 송은지 청소년은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는 Y-틴을, (사)세종YWCA의 남경희 청소년은 '적극적으로 앞에서 모두를 당당히 이끌어 가는 청소년의 미래의 상,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Y-틴'을 꿈꾼다고 답변하며 Y-틴 미래의 청사진을 함께 그렸다.

7.23 DMZ로 모이자! 휴전에서 평화로!




한반도에 불신과 적대의 기운이 가득하다. 어렵게 맺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이 멈춘 사이, 관계는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18년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전 세계에 천명했고 북미 정상 역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 불신과 적대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각국은 합의 이행을 위한 의지보다는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 비핵화의 희망은 점점 절망과 체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듯하다.

이에 정전협정 체결 69년 앞두고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인 7월 23일(토) 오후 2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7.23 DMZ로 모이자! 휴전에서 평화로>를 진행했다.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DMZ 앞에서 “적대를 멈추자, 전쟁을 끝내자, 남북·북미 정상 합의 이행하라,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를 결의했다.

임진각 망배단 앞에 꾸며진 단상 앞에는 23일(토) 이른 아

침부터 서울, 평택, 강화, 춘천, 전북, 광주, 대전에서 출발한 평화버스에 탄 캠페이너들 천 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한국 YWCA 에서는 고양, 의정부, 부천YWCA의 회원과 연합회 실무활동가들 총 20 여 명이 참가하였다.

문화제의 첫 순서는 레즈피스의 ‘평화의 두드림’으로 시작하여 문정현 신부, 윤정숙 공동대표와 한충목 공동대표의 대회사로 진행되었다. 신나는 섬과 이은미 가수의 음악 공연과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분들의 평화의 이야기 발언순서가 이어졌다. 평화의 약속 순서에서는 ‘평화의 약속 결의문’이 낭독되었고, 대형 현수막 펼치기 퍼포먼스와 임진각 철책에 평화의 리본 달기 행동 등이 진행되었다.

행사장 양쪽에 마련된 평화부스에서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 평화리본 달기, 피스토퍼 사진 찍기 등 다양한 평화활동도 참가할 수 있었다. 문화제가 마쳐갈 4시경에는 갑작스런 비가 내렸지만 참가자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은 대형 현수막 펼치기까지 흔들림없이 진행되었다. 

글·편집실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평화의 약속> 결의문

대결로 치닫는 위기의 한반도,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듭시다

한반도에 불신과 적대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어렵게 맺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이 멈춘 사이, 관계는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긴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70년 이 다 되어가도록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오랜 시간 대립과 긴장,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이곳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천명했던 지난 2018년을 기억합니다. 70년간 이어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마침내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적대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각국이 합의 이행을 위한 의지보다는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슬픈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통한 설득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과연 각국 정부가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실제로 줄이고 협상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근 수년간 남한의 군사비는 역대 최대로 치솟았습니다. 북한 GDP 총액의 1.5배를 넘어섰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점점 강화되었고, 남북 교류협력도 가로막았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도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유사시 선제타격도 공공연히 언급해왔습니다. 정말 이런 방법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부는 지금 군비 경쟁과 소모적 대결의 악순환 속으로 우리 모두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한반도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핵 문제도 더욱 해결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힘에 의한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70여 년 동안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변화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걱정과 탄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DMZ 앞에 모였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면 과거보다 더한 불신과 적대가 힘을 얻고,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놔두지 맙시다.

우리는 오늘 임진각 평화행동을 시작으로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전쟁을 끝내고 세계를 좀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평화행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길이고, 평화가 답이라고 더 크게 이야기하고 행동합시다.

다 함께 외칩시다!

**적대를 멈추자!
전쟁을 끝내자!
남북·북미 정상 합의 이행하라!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

2022년 7월 23일

정전협정 체결 69년을 앞두고 임진각에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참가자 일동

“Y인으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정서연

(사) 한국YWCA연합회 팀장



올해 전국 22개 회원 YWCA에서 총 42명이 수료한 2022 YWCA 신입실무활동가교육이 7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되었다. <YWCA 목적문 이해> (구정혜 연합회 사무총장), <YWCA 운동과 운영 이해> (이수진, 홍수진, 김미애, 장세영, 이해련 연합회 활동가), <YWCA 깊이 만나기> (유성희 평창청소년수련원장, 이천진 한양대학교회 교목), <YWCA 이벤트 기술공유> (고마음, 손지수, 유에스더 연합회 활동가), <목상 워크숍> 시간을 가졌다.


2022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한국사회에서 100년의 역사를 지닌 유일한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사회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YWCA의 역사는 YWCA 뜻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사로, 이번 신입실무활동가 교육 참가자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다.

YWCA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해에 개최되는 신입실무활동가교육인 만큼, YWCA 활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이들이 YWCA 목적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100년의 역사를 지닌 유일한 기독교여성시민단체에 소속하여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YWCA가 100년을 이어올 수 있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YWCA 목적문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이 땅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 기독교성이 일해온 과정을 나누었다. YWCA에서 전개하는 탈핵기후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 회원운동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화 된 과정임을 설명하고 이 모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YWCA의 조직정비를 위한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또한 YWCA 깊이 만나기 시간을 통해, 지난 100년의 역사에 이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활동가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모처럼 현장을 떠나 평창의 깊은 자연 속에서 거닐고 호흡하며 새로운 기운을 채우기도 하였다. 또 동료 신입실무활동가들이 행사가 유독 많은 YWCA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술도 나누었고, YWCA 목적과 활동가로서의 삶을 연결지으며 생각할 수 있는 목상워크숍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박 2일간 같은 공간에서 전국의 YWCA 활동가들을 만나며, YWCA 활동가는 혼자 아닌 동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Y인으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Y에서 하는 일인 하나님 나라 운동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Y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YWCA 새로운 100년의 여정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 

보노보 프로젝트팀 연극 ‘우리가 남기는 흔적의 문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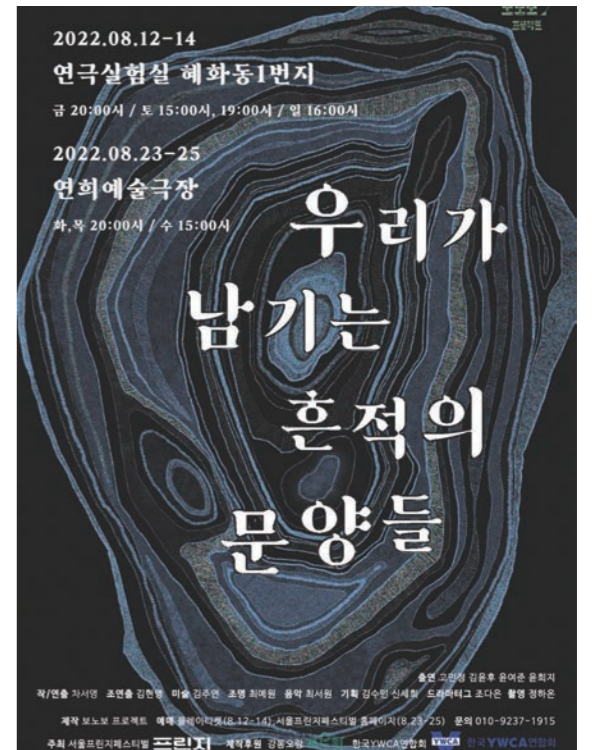
| 홍현정

(사) 한국YWCA연합회 부장

이번 여름은 지난 여름과는 또다른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줬다. 80년만의 폭우가 지나간 뒤 여기저기서 ‘기후위기’라는 키워드가 다시 눈앞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플라스틱 줄이기 같은 행동들이 이 거대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싶고,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요즘이다.

대학로에 있는 혜화동 1번지에서 8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공연된 ‘우리가 남기는 흔적의 문양들’은 연극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를 사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창작극이다. 한국YWCA연합회에서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시작한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 홍청망청’의 13개 팀 중의 하나인 보노보 프로젝트팀 작품이다.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는 “소극장”이라는 용어가 딱 어울리는 정말 작은 공간이었다. 계단을 내려가자 [고도를 기다리며]의 무대 세트와 비슷한 나무 한그루가 서 있는 아주 작은 공연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실제로 보노보팀은 연극안에 사무엘 베케트 원작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오마주하는 장면을 삽입해서 극에 응용했다) 객석은 단 두 줄로 모든 좌석이 딱 찬다고 하더라도 20여명 정도가 앉을 만한 크기였다. 연극이 시작되자 네 명의 배우들이 관객의 바로 앞으로 다가와 생생한 호흡으로 이야기하고 노래했다. 20년 전에 마을이 물에 침수되면서 부모님을 잃었던 남매를 포함한 주민들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서 살았는데, 그 곳이 다시 침수



될 위험에 처해지는 이야기이다. 기후위기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지질학자, 개발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폭우에 목숨을 잃게 되는 건설노동자, 마을이 침수되기 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기록을 시작하는 다큐작가 등이 등장한다.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 신나는 곡조의 노래, 1인 2-3역씩 감당하는 배우들의 호연에 7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몰입해서 연극을 관람했다.



보노보팀은 2016년 여름에 발생한 태풍으로 대구에 사는 친구의 집이 물에 잠겼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 2019년 여름에 발생한 스콜성 장마 등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우리의 삶이 기후위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번 연극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팀 이름에 들어간 '보노보'는 피그미 침팬지라고도 불리는 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인데, 권력과 폭력이 중심이 되는 침팬지 사회와는 달리 평화를 추구하고 공감을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삶의 시작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연대'라는 믿음으로 연극이라는 매체를 통해 연대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고 싶다는 구성원들의 소망을 담고 있다.

성균관대 연극영화과 8명으로 구성된 보노보팀은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전까지 연습일은 고기 없는 날, 북한산 플로깅, 온라인 제로 웨이스트 인증 모임 등을 실천하고 기후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독서 토론토 매달 진행했다.

한국YWCA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흥청망청 프로젝트에는 보노보팀 말고도 12개 팀이 각 지역에서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문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가나 독립 서점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홍해도 청년, 청년이 소망하는 세상"이라는 '흥청망청'의 본래 의미와 같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는 한국YWCA가 되어야겠다. 

2022 양성평등 임금의 날 워크숍 : 지역별 성별임금격차 연구 결과 발표 진행돼

| 이한빛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지난 8월 11일(목) 한국YWCA 실무활동가 및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2022 한국YWCA 양성평등 임금의 날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그간 한국YWCA가 전개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운동에 대한 소개,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 현황 발표, 회원YWCA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사례 공유가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순서대로 김은경 성평등정책위원장, 김난주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양YWCA 이규숙 사무총장, 창원YWCA 반혜영 사무총장이 진행하였다.

한국YWCA 양성평등 임금의 날 제정운동

한국YWCA는 2020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제정될 때까지 다방면으로 '동일 임금의 날' 제정 운동을 전개해왔다. 한국YWCA의 동일 임금의 날 운동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김은경 (현)성평등정책위원장이 당시 국회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면서 국회 법개정운동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에 2014년에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행동하는 여성연대'라는 연대체를 구축하여 동일임금의 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화문에서 '소녀들을 위한 동일임금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연중 캠페인으로 적자를 의미하는 빨간색 가방을 사용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5년에도 행동하는 여성연대를 통해 동일임금의 현실과 과제를 살펴보고 동일임금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정책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이후 거리 캠페인, 엽서보내기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과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2016년에도 행동하는 여성연대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여 한국의 동일 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고, 고용평등주간 시민들에게 임금 차별의 현실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이 전국 14개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2017년 동일임금의 날 정책 토론회 이후 신용현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남녀임금격차해소법을 대표발의를 하였다. 동일임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거리캠페인도 계속되



었고, 2018년에는 “임금차별은 불법이다!”를 주제로 한 좌담회와 입법정원 관련 기자회견, 거리 캠페인도 이어졌다.

2019년, 신용현 의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로 발의하였다. 한국YWCA는 토론회 주관 및 거리캠페인 진행을 통해 동일임금의 날 제정에 박차를 가했으며, 21개 회원YWCA가 지역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드디어 2020년 4월 29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 제정은 한 사람만의 성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뿐 아니라 전국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참여한 한국YWCA 활동가들, 그리고 여러 여성단체의 연대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의 성과인 것이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 제정, 그 이후의 운동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제정되었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YWCA의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 제정은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 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일 뿐, 이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YWCA는 2021년 ‘양성평등 임금의 날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YWCA가 향후 추진해나가야 하는 운동 방향성을 모색했고, 채용 및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운동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한국YWCA는 올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 첫 시작으로 2022 한국YWCA 양성평등 임금의 날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성별임금격차 현황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지역별 성별임금격차 현황

1. 월 평균 임금

- 2021년 4월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35.7%임
- √ 전남은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가 43.4%로 전국에서 가장 큼, 전남 이외에 울산 42.4%, 경북 40.5%로 40%가 넘는 지역임
- √ 제주도는 27%로 전국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적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30% 미만임



지역별 성별임금격차 현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이자 한국YWCA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인 김난주 박사가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4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17개 시도의 성별, 연령별 고용률 및 경력단절여성 현황, 임금근로자 일자리 현황,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것이다.

여성고용률 17개 시도시 모두 15세 이상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낮으며 울산이 가장 낮았고, 고용률 성격차는 세종시가 가장 컸다.

경력단절여성 비취업경력단절여성의 평균 연령은 39.9세이며, 세종시가 38세로 가장 적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 세종, 대전이며,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울산이 가장 높고, 비취업 경력단절이 된 기간도 99년으로 가장 길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여성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전남이 가장 높으며, 남성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전국에서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고 강원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관리자 비율 임금근로자 중 관리자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높고, 경상북도에서 성격차가 가장 크다.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임금근로자 중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 비율은 강원도가 가장 높고, 성별 격차는 경북이 가

장 크다.

근속년수 모든 지역에서 여성의 근속년수가 남성보다 짧으며, 인천이 4.4년으로 가장 짧다. 성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4.8년 짧은 울산이 가장 크다.

월 중위 임금 기준 성별 격차는 전라남도가 39.1%로 가장 크고 제주도가 20.6%로 가장 적다. 시간당 임금 기준 성별 임금 차이는 4,977원이고, 울산이 6,655원으로 격차가 가장 크며 제주도가 3,587원으로 가장 낮다.

임금차별 그러나 전국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차별은 72.2%인데 반해, 제주도는 84.8%로 가장 큰 수치를 보였으며, 울산은 55.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김난주 박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 고양, 창원, 충남 4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성평등임금 공시제’의 지자체 시행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2022년 6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전국의 159개 세일센터를 통해 지역 특성 반영하여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전개될 한국YWCA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운동

마지막으로는 ‘향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운동은 각 지역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YWCA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양YWCA 이규숙 사무총장과 창원YWCA 반혜영 사무총장이 각 회원YWCA에서 진행되고 있는 운동과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규숙 사무총장은 안양YWCA가 전개해온 운동을 1)여성들의 대표성 강화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협약, 안양시민단체 연대를 통한 정책제안 활동을 포괄하는 ‘성평등 유권자 운동’과 2)젠더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심화사업을 만들어가는 ‘성인지정책 연구활동’, 3)회원들과 함께 준비하며 진행하는 ‘성평등운동 대시민 캠페인’ 활동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한 앞으로 전개할 활동으로 안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입법요구 활동과 안양시 성별임금공시제 공약 이행 요구, 이를 위한 실태조사 사업 계



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반혜영 사무총장은 경상남도의 현실을 심도 있게 설명하며, 성별임금격차의 주된 요인이 되는 경력단절 문제 해결, 그 중에서도 돌봄서비스 직종의 가치평가 개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창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여성친화 도시 이행 평가 및 정책 개발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저임금 실태와 처우 개선을 강조할 것이며 성평등 연구모임을 통해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 2023년에는 의정모니터링을 통해 의회에 개선을 촉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그간 창원시에 건의해온 정책을 설명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양성평등 임금의 날은 9월 1일(목)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화와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한국YWCA는 시도별 임금격차 현황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 양성평등 임금의 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올해도 성별임금격차 ‘0’을 향하여!

갈등과 위기의 세상에서 화해와 일치를 외치다

| 채송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에큐메니칼 코디네이터

WCC 제11차 총회가 코로나로 인해 일년 연기되어 2022년에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전히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세계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도 카를스루에로 가는 배의 노를 힘을 합해 젓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WCC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네 개 교단은 2021년 10월 말 WCC 제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를 꾸렸다. 제10차 부산총회(2013년) 이후 카를스루에에 이르는 여정에서 한국교회는 직전 총회 개최국으로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네 개의 회원교단이 협력해서 준비위원회를 만든 것은 WCC 총회를 함께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한국준비위원회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회원 교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한국교회와 사회에 WCC 제11차 총회를 알리려고 노력했다. 한반도 종전협정 69주년이었다던 지난 7월 27일에는 WCC 총회 프리이벤트로 독일대사관과 함께 한반도 평화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한국준비위원회가 회원 교단들이 중심이 되어 모였다면, WCC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국동행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WCC 총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매달 예배를 드렸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WCC 제1차 총회가 모였고 이번이 열한 번째 총회이다. 매 총회는 주제도 다르고 총회가 열리는 장소와 그 당시의 지구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정도 결과도 매번 다르다. 제 11차 총회를 독특하고 유일한 것으로 만들게 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번 총회 개최지는 독일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역사적으로는 세

번째로 유럽이 총회를 개최하는 상황이다. 11차 총회는 현지 유럽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독일개신교회(EKD), 바덴주교회, 독일교회협의회(CCG), 프랑스의 알자스-로렌트개신교연합(UPEPAL)과 스위스개신교회가 함께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초청한다.

WCC 총회의 필요성

WCC 총회는 먼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곳이다. 7월 말에 발표된 정보에 의하면 이번 총회에는 총대가 약 750명, 관련된 기관이나 협력기관, 타종교의 대표자들, 어드바이저들, 초청된 손님 500명, 스텝과 학생들이 300명, 참가자들이 1500명 이상이다. 이 숫자만 합해도 기본이 3천 명이다.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주일간 모여 함께 지내면서 마주치면 눈인사를 주고받고 함께 밥을 먹고 기도회를 하고 다양한 워크숍과 전시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주제를 놓고 토론한다. 그러면서 인종과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는 친교의 마당이 활짝 펼쳐진다.

동시에 총회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총회까지 WCC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150명의 중앙위원과 8명의 지역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에서는 향후 WCC의 방향이 세워지고 중요한 선언물들이 발표되며 WCC의 사업과 현장과 재정이 정해진다. 이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동의 즉,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다. 그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총대들은 오렌지색 카드와 푸른색 카드를 사용해서 의사를 표시한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통해 다음 총회까지 8년 동안 WCC가 어떻게 일

치를 이루어갈지, 어떤 식으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지, WCC라는 거대한 교회들의 모임을 재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가 정해진다.

하지만 다양한 신앙 전통과 역사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모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때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WCC 총회 기간에 몹시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생활이다. WCC 현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WCC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이자 구원자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우리 안에 새겨진 이러한 DNA를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해 총회는 매일 아침 기도회와 성경묵상으로 시작해서 저녁 기도회로 마무리된다. 성경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 중에서 WCC 총회에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정을 감싸 안는 것이 바로 총회의 주제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는 이 신앙 고백적 선언은 총회 동안 벌어지는 한 사람이 다 이해하기에는 거대한 코끼리 같은 총회를 둘러싸고 총회와 그 안에 연결된 사람들을 조금씩 움직여 갈 것이다.

총회 기간에 있을 다양한 회의와 행사

이번 총회는 독일 서남부의 작은 도시인 카를스루에서 열린다. 공식적인 총회 일정은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지만 총회 전에 청년, 여성, 장애인, 원주민 사전대회 등 네 개의 사전대회가 있다. 교회와 사회에서 여전히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청년, 여성, 장애인, 원주민들과 이들과 사귀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WCC가 총회 전에 사전대회를 하는 것은 WCC가 다양한 사람들, 특히 주변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매일의 일정은 기도회로 시작되어 기도회로 마무리되며 주제 회무 시간(thematic plenary)에는 신학적인 성찰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상황적 성찰이 이루어진다. 이번 총회 때에는 '홈그룹'이라는 시스템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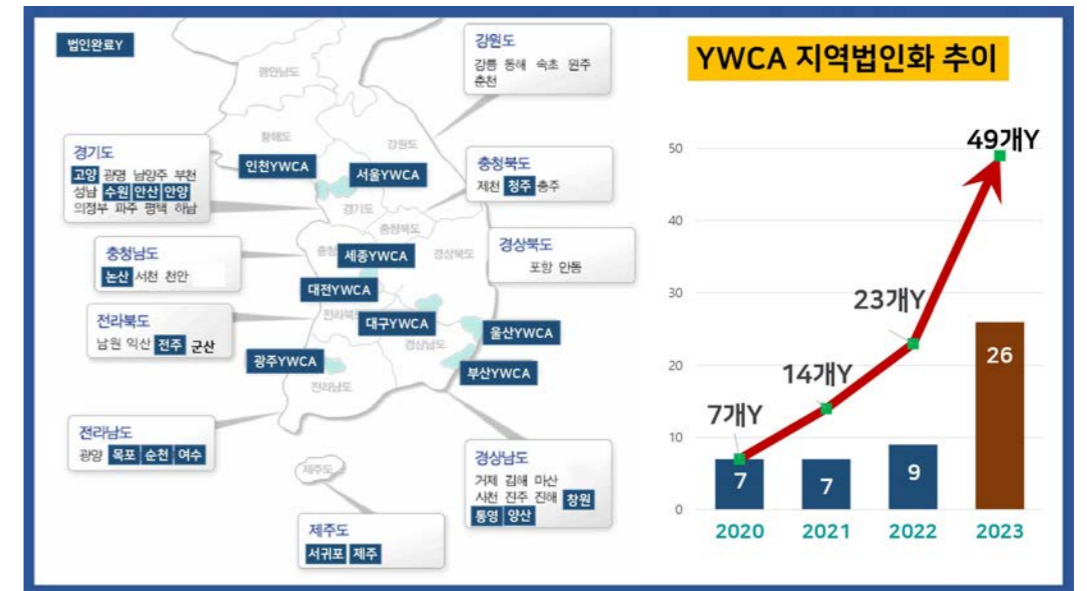
위에서부터 (사진제공: WCC 홈페이지)
- 지난 7월 27일에 WCC 제11차 한국준비위원회와 독일대사관이 WCC 총회 프리이벤트로 함께 연 한반도 평화콘서트
-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 전 마지막으로 열린 WCC 중앙위원회 - WCC 주제 해설 책자

한다. 총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홈그룹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별성경공부모임 같은 것이다. 각 홈그룹으로 배정된 총대들은 일주일 내내 그 그룹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제자의 도리를 확인하게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일정은 에큐메니칼 대화이다. 총대들은 나흘에 걸쳐서 자신이 선택한 하나의 그룹에 속해 23개의 주제 중 한 주제에 대해 듣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게 된다. 에큐메니칼 대화에서는 선교, 장애인, 창조정의, 건강, 불평등, 경제, 디아코니아, 섹슈얼리티, 변화하는 세상, 중동, 평화구축, 다른 종교들, 인종 문제, 이주, 종교 간 연대, 에큐메니칼

회원YWCA 재구조화 전문 상담, 챗봇(whY봇)으로 만나다

| 조직혁신지원국



회원YWCA 재구조화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된 지 벌써 3년차가 되었다. 현재까지 전국 52개 회원YWCA 중 23개 회원YWCA(44%)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남은 29개 회원YWCA(56%)도 2023년 말까지 모두 재구조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원YWCA 재구조화 지원을 위한 일대일 상담 및 컨설팅
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에서는 회원YWCA 지역법인 추진의 연합회 승인과정, 법인창립총회, 지자체법인설립허가신청,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과정을 밀착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YWCA별 전담 상담이 가능하

도록 권역별 담당자를 배정하여 유무선 상담을 통해 일대일로 회원YWCA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YWCA 실시간 상담지원을 위한 챗봇시스템 도입
회원YWCA 재구조화 지원상담의 경우 회원YWCA별 상황이 모두 다르고 세무이슈, 법제도등에 대한 중대한 이슈들이 있어 법적 검토 및 전문적인 상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진행해 온 회원YWCA 재구조화 상담내용 중 전문적인 상담 외에도 전국 공통의 지침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문의 내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문상담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상담시간이 길어져

신학교육, 젠더 문제, 윤리와 인권, 정의와 평화 순례를 비롯한 23개의 대화모임이 열린다. 이 대화모임의 결과물은 총회 기간 동안 위원회와 총회 이후 새로 구성될 위원회와 공유되며 향후 WCC의 프로그램에 반영된다.

총회 기간 동안 모두가 예의주시하는 시간은 회무 시간(business plenary)이다. 총대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나이, 지역, 직분, 성별을 고려해 위원회에 배정을 받게 된다. 재정, 메시지, 인선,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총 6개의 위원회가 작동하는 데 위원회는 회무 시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게 되어있다. 이 외에도 교파별 모임과 지역별 모임도 따로 모인다.

2013년 WCC 부산총회에 가본 사람이라면 '마당'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번 11차 총회에서는 독일어로 '우물'이라는 뜻인 '브룬넨'이라는 공간이 마련되어 총회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과 전시를 선보인다. '우물'은 만남과 소통의 장소이며 갈등이 해소되는 곳이라는 심상을 지닌다. 브룬넨과는 별도로 독일교회는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카운터는 총 8개의 주제에 초점을 두는데 각 주제를 다루는 8개의 공간이 카를스루에 도시 곳곳에 마련되어 참가자들은 도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브룬넨과 인카운터만 제대로 둘러보아도 참가자들은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9월 3일 토요일과 4일 주일에는 WCC가 준비해 놓은 다양한 주말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회원교회의 총대들만 참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에큐메니칼 대화마당, 홈그룹 등) 모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너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제의 기회들이 있다. 작년 10월에 WCC 제11차 총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고 교단의 에큐메니칼 담당자로서 이 모든 준비과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개인적으로 뿌듯한 부분이 하나 있다. 각 교단들이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교단의 후원으로 '청년방문단'들을 꾸린 것이다. 이들은 청년총대, GETI, 스튜어드로 WCC 총회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교단의 후원을 받아 카를스루에 가서 청년사전


대회에 참가하고 전 세계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세계교회의 신학과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번 총회에 준비해 가는 것들

총회 기간 동안 연사로 강이나 발표를 하는 한국교회 대표들이 있다. 에큐메니칼 대화마당에서 진행이나 발표를 맡은 한국인들이 여럿 있는데 금주섭 CWM 총무는 에큐메니칼 대화 1번에서 좌장을 맡았고, 박성원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에큐메니칼 대화 9번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강연을 한다. 에큐메니칼 대화 14번에는 NCCK의 이홍정 총무와 예장 총대인 조은아 청년이 '평화구축'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정희경 목사는 에큐메니칼 대화 20번에서 '젠더문제'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브룬넨 부스에서는 NCCK와 참여연대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기후위기 전시를, 영등포산업선교회와 민중선교단은 조지송 목사와 산업선교를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브룬넨 워크숍 프로그램에는 NCCK가 한반도에 대한 평화 호소를, 감리교 청년들은 청년 빈곤의 문제를 다루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기독교장로회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월요기도회를 연다. 이 외에도 독일교회가 주관하는 인카운터 프로그램에서도 김은하 박사, 오현선 목사, 정희경 목사가 여성안수, 소수자, 젠더 등의 주제로 발표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WCC 제11차 총회가 끝난 이후이다. 이번 WCC에서 다루지는 안전들과 결정사항들, 발표되는 선언문들이 총회 후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교단 총대들을 비롯한 참가자들도 총회 이후에 자신들의 경험을 계속하고 공유해서 이것을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대해야 할 것이다.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YWCA가 이번 WCC 제11차 총회의 결과물들을 오늘의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수용해서 어떻게 한국의 청년운동, 여성운동, 기독교운동에 담아낼지 그 고민과 시행착오가, 또 실천이 필요하다. 

긴급한 문의가 있을 때 동시에 응대가 불가능 할 수도 있고, 단순한 문의사항이지만 연합회 내부 회의나 행사 등의 사정이 있거나 하는 경우 즉각 답변이 어려워 추후 회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회원Y에서도 이사회나 재구조화TF 회의 중 급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혹은 야간이나 주말 등에도 긴급하게 문의가 필요한 경우 상담요청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혁신지원국에서는 그동안 회원YWCA의 상담사례 중 전문적인 검토와 상담이 필요한 내용의 단순한 질문사항을 즉각 답변 받을 수 있고, 회원Y 법인준비 실무자 누구나 어느 시간대건 편하게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기획조정국 인트라넷팀과 함께 한국YWCA 내부 인트라넷인 Y-NET을 활용한 회원YWCA 재구조화 챗봇 상담시스템을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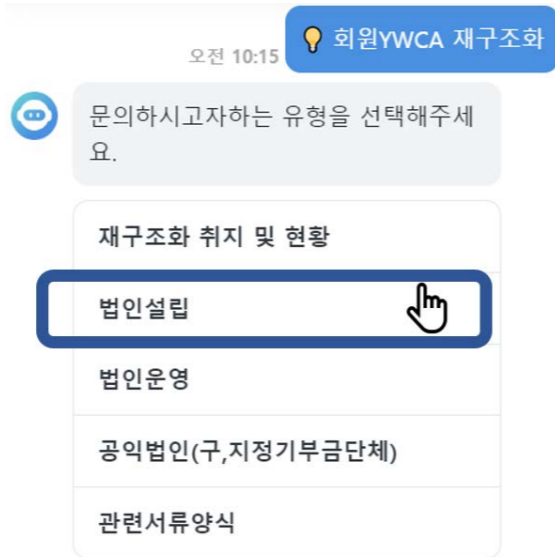
챗봇을 통한 회원YWCA 재구조화 상담지원

회원YWCA 재구조화 문의 응대를 위한 챗봇의 기본데이터는 회원YWCA 재구조화 지원교육 자료와 교육시 나누었던 질의응답내용, 각 권역별 담당자들의 유무선 상담기록을 기초로 제작되었다. 그동안의 재구조화 지원 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응대할 수 있는 FAQ봇 형식과 질문자가 키워드를 검색하여 상담하는 시나리오 봇 두 가지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듯 회원YWCA 재구조화 관련 내용을 카테고리화하여 챗봇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년간 진행된 회원YWCA 재구조화 과정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회원YWCA들이 깊이있고 유의미한 상담사례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며, 연합회에서는 그 기록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축적·관리해왔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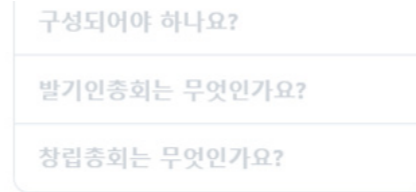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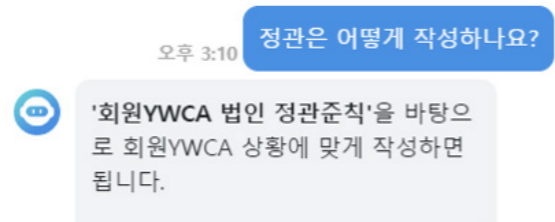
챗봇에 도입되는 회원YWCA 재구조화의 카테고리

1. 재구조화 취지 및 현황
2. 법인설립
 - 2-1. YWCA 지역법인 승인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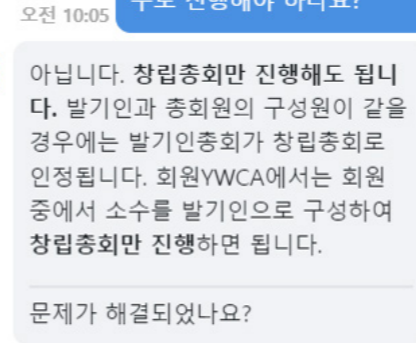
- 2-2. 주무관청
- 2-3. 사단법인설립 허가신청
- 2-4. 정관 (작성방법, 목적사업, 총회, 회원)
- 2-5. 법인임원 (임원수, 이사, 상임이사, 감사)
- 2-6. 재산(출연재산, 기본재산)
3. 법인운영
 - 3-1. 부속시설 (부속시설 이전, 회원Y 부속시설관계)
 - 3-2. 재산이전
 - 3-3. 법인행정 (주무관청 허가사항, 주무관청 보고사항, 등기사항, 법인 행정비)
4.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지정신청, 공익법인회계)
 - ※ 재구조화 관련 각종서류 목록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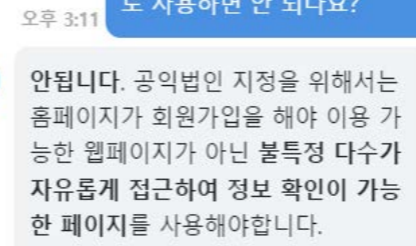
실제 챗봇창에서 보여지는 주요 질문내용 중 일부



발기인총회와 창립총회 둘 다 필수로 진행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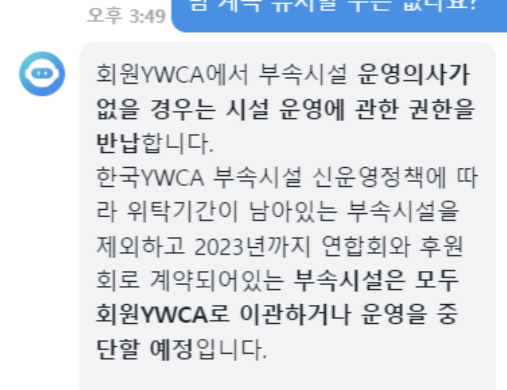


법인의 홈페이지를 네이버 블로그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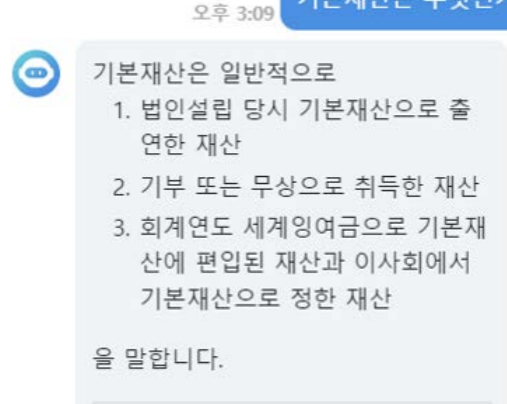


이러한 챗봇(why봇)의 회원YWCA 재구조화 카테고리에는 한국YWCA 인트라넷인 Y-NET을 통해 오는 9월중에 만나 볼 수 있으며, 23년 9월까지 1년간 시범운영하며 재구조화 전반의 정부지침이나 세법개정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이후 사용빈도 분석과 회원YWCA의 요청을 반영하고 추후 법인운영과 관련한 내용들도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챗봇시스템 도입의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국 인트라넷팀에서는 추후 일반 회원들도 챗봇을 이용하여 후원 및 행사문의 등을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에도 챗봇 도입을 검토중이다. 회원YWCA와 연합회가 함께 진통하며 겪어온 YWCA 재

부속시설의 법적 운영주체를 회원YWCA가 아니라 후원회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할 수는 없나요?



기본재산은 무엇인가요?



구조화의 축적된 사례와 경험이 이번에 도입되는 챗봇시스템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 사례와 제도적인 개선방향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회원YWCA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사회의 많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챗봇시스템 이용문의: 기획조정국 인트라넷 팀 이예림 간사(Tel: 02-4952-4758)
 * 챗봇 회원YWCA 재구조화 카테고리 관련 문의: 지원국 지역법인화준비 지원팀 고마음 간사(Tel: 02-6952-4762)
 * 회원YWCA 재구조화 지원 권역별 담당자: 김미애 팀장(Tel: 02-6952-4813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광역시 일부), 이혜련 부장(Tel: 02-6952-4812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광역시 일부)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8.15 한반도평화 공동기도주일 2022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주님, 언제여야 합니까?
 언제여야 길 잃은 한반도의 방향이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여야 아픔의 땅, 한(조선)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언제여야 남과 북/북과 남이 서로를 향해던 총칼을 내려놓고, 서로를 얼싸안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호소에 절망이 깃든지 오래입니다. 기약 없는 평화를 목 놓아 기다리는 것도 지쳐만 갑니다.
 기어이 백년을 넘기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입니다. 주님, 언제여야 질게 드리운 분단의 그림자가 걷히는 것입니까?

긴 세월, 남과 북/북과 남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수많은 민민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비난해왔던 수십 년간, 마음의 간극은 깊어졌고 한민족의 정체성은 희미해졌습니다. 분단을 먹이사슬이 기생하는 이들은 이악스럽게 살아남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의 몸짓을 막아치고 있습니다.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긴장과 갈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민민의 삶에 무거운 멍에가 되고 있습니다. 깨어진 신뢰 속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한반도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념이 그어놓은 철조망은 77년째 녹슬어가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주님, 한(조선)반도의 민민은 꿈이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참혹한 역사에 굽히어 생긴 깊은 상처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는 서로가 미워하며,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평화를 말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빚어낸 모든 간극이 해소되고, 전쟁이 세워 낸 철조망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체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는 끔찍한 전쟁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는 폭력의 광풍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북/북과 남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며, 함께 자주적으로 복잡한 분단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한반도를 향한 민민의 이 꿈들이 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추동할 역사의 발걸음을 상상하게 해주십시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취해야할 소명임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남과 북/북과 남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분단의 깊은 상처가 아물고, 한민족이 손을 맞잡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평화롭고 자주적인 한반도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남북/북남통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77년 분단의 세월, 가능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축적된 인고의 시간. 주님, 더는 안 됩니다. 더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는 전쟁과 폭력의 사슬에 묶여 끌려 다닐 수 없습니다. 민민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남과 북/북과 남 그리스도인들의 절규에 응답해주십시오. 화해와 평화를 향한 버겁고 멀고 먼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정의의 왕,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가 2022년 8월 14일(주일) 오후 3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 레이시홀에서 NCK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정병주 목사의 말씀 나눔으로 열렸다.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는 전 세계교회가 매년 8월 15일 직전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세계교회가 함께 드리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을 위한 예배에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 기도문'이 드러졌다. 본 기도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가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에 제안한 남측초안이다.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9월 24일, 광화문으로 모이자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지나 이제 우리는 기후재난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다. 폭염, 산불, 가뭄, 홍수가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왜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는가? 각국 정부와 대기업들의 휘황한 말잔치에도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 탓이다. 이윤의 극대화, 성장과 팽창에 매몰되어 지구 생태계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착취하는 기업과 정부 탓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종적 불평등을 지속하는 사회 체제 탓이다. 다시 묻는다. 이 기후는 누구에게 닥치는 재난인가? 누군가에게 낯설게 외제차가 침수되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잃는 재난이다. 기업들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돈벌이의 기회로 여기기까지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일터와 삶터에서 쫓겨날까 걱정하고 취약한 환경에서 재난으로 인한 죽음을 느낀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다른 누군가는 '피해의 최소화'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고작인 오늘날의 기후재난과 탄소중립 정책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현실이 된 기후재난 앞에 우리는 공포를 느끼고, 절망한다. 기업의 파괴적 이윤추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성장주의적 체제가 기후재난의 원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견고한 자본·정치 권력 앞에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체념하지 않는다. '이대로 살 수 없다.' 우리는 기후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후·환경'이라는 의제를 넘어 노동자, 농어민, 여성, 장애인, 빈민, 종교인, 반전주의자, 성소수자, 청년·청소년으로서 연대하고 있다. 동물과 숲, 바다를 대변하는 존재로서 모였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한 체제를 넘어 서서 살아남기 위해, 살아남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기로 우리는 결의한다. 기후위기의 최일선에 서서, 기후정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화석연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공공적,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시장화된 화석연료 기반 교통, 운송 체계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공교통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편 사고위험과 방사성 폐기물로 기후·생태위기를 가중시키는 핵발전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지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쟁적 이윤추구를 넘어 재생과 순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 둘째, 모든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최상위 부유층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본에 의해 고용·거래된 노동자와 빈민, 비인간 동물과 생태계는 한낱 소유물이 되어 착취와 수탈에 신음하면서도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먼저 위협받는다. 위기와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으며, 불평등의 선을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한다.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폭력과 피해가 집중된다.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모든 불평등을 끝장내고 지구적,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 셋째,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 세상을 이렇게 망쳐놓은 기업과 자본, 정치인들에게 다시 세상을 맡길 수 없다. 기후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이며 위기 극복의 주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최일선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온 몸으로 겪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기후정의를 말해야 한다. 폭염과 홍수에 생명을 위협받는 주거빈곤층, 난개발에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농토와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농민과 노동자들, 기후위기에 더 큰 위협을 받는 여성·성소수자·장애인 그리고 무참히 희생되는 비인간 동물과 생태계가 우리의 다른 이름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로부터 시작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기후정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재난과 위기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주지만 '기후정의'는 기후재난을 겪는 세계를 함께 헤쳐나갈 방향이자 대안이다. '기후정의'는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알려주는 방향이다. 우리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있는 자본 권력에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고, 정부가 불평등한 체제를 종식하도록 하는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한다. 9월 24일, 우리는 서울 광화문에서 모여 '기후정의'를 외치며 싸울 것이다.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시민들은 광화문 거리로 모여달라. 이대로 살 수는 없다.

924기후정의행진을 한달 앞둔
2022년 8월 24일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6월 WCC 제 11차 총회 한국동행모임 예비



6월 29일 수요일 경동교회에서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한국YWCA연합회의 공동주관으로 WCC 제11차 총회 한국 동행모임이 열렸다. 이번 모임은 한국동행모임의 마지막으로 청년 예수(Closing Ceremony)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예배의 진행은 예장통합 WCC 11차 총회 총대를 맡은 조은아 청년이 인도를 맡았으며 성문밖 교회의 박정하 목사가 찬양과 반주를 담당하였다. 3인의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와 차례대로 청년들의 기도를 나누었고 이어 박세론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정의, 평화에 대한 나눔으로 청년의 삶에 대해 나누었다. 말씀 나눔은 장철순(KSCF), 김재진(없어있는마을), 임지희(기독교환경연대) 청년들이 각각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신앙을 담은 글을 소개하며 진행되었다.

7월 월례아침기도회



7월 월례아침기도회가 7월 1일(금) 오전 9시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옥수 교수가 사사기 5장 1절-12절 말씀을 통해 '비전, 열정, 헌신의 여성 리더'라는 주제로 설교하였다. 또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비전과 열정, 헌신의 리더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시대에 다시 꿈을 꾸고, 뜨거운 열정으로 솔선수범하는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는 한국YWCA 리더가 되기를 소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5쪽)

YWCA 100주년 기념사업 여성평화 순례와 포럼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 '여성평화 순례와 포럼'이 7월 6일(수)-7일(목) 광주에서 진행되었다. 첫날 광주 지지항에서 열린 국제평화포럼은 '여성이 만드는 평화, 어떻게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하여 본회 평화통일 자문단 김성경 위원(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하여 우크라이나YWCA, 팔레스타인YWCA, 일본YWCA, 그리고 한국YWCA의 이숙진 전 아카데미 위원의 토론이 있었다. 세계 여성들의 평화 활동을 공유하고 연대를 갖는 자리로 진행되었으며, 현장과 웨비나에서 총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전국 각 지역에서 현장에 자리한 100명의 평화순례단은 국제평화포럼 이후 폐제 형식의 평화기도회를 가졌으며, 둘째 날에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순례와 선포, 한반도기 및 우크라이나 기 퍼포먼스 등을 통해 평화순례자로서의 결의를 다지고 평화의 선언을 하였다. 한국YWCA는 창립 95주년인 2017년 한라에서 시작된 6년간의 평화 순례 대장정을 마무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12쪽)

여성가족부 장관과 주요 여성 단체 현장소통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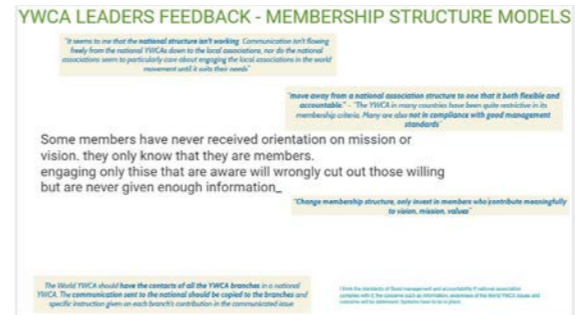


<출처: 뉴스>

한국YWCA 및 5개 단체 대표자들이 7월 1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주요 여성단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YWCA에서는 김은경 성평등정책위원장이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유권자연맹, 21세기 여성정치연합 단체장이 참여하였다. 간담회에서 각 단체의 대표자들은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김은경 성평등정책위

원장은 고용 시장에서의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용 시장 관련 사안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 점을 밝히며,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 남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례적이지는 않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YWCA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World YWCA 대화모임



7월 12일 세계YWCA 대화모임이 온라인에서 진행되었다. 세계YWCA는 작년년부터 회원국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화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화모임은 참가국의 시간대를 고려하여 총 3회 진행되었으며, 한국YWCA에서는 원영희 회장과 이한빛 간사가 참여하였다. 이번 대화모임의 주제는 내년엔 진행될 YWCA 세계대회에 앞서 회원 구조 및 지역회의에 대한 논의였다. 세계YWCA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 체제 뿐 아니라 국가 단위의 조직이 없는 회원YWCA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아시아YWCA지역회의와 같은 지역회의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어 포괄적으로 세계YWCA의 체계를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계YWCA 대화모임은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며, 참석 대상에 따라 회원YWCA에도 관련 소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故 김필레 선생 39주기 추모예배



YWCA 창립자 중 한 분이신 김필레 선생의 제39주기 추모예배가 7월 13일(수) 오후 1시 20분에 정신여중교 김마리아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박혜성 정신여중 교장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예배에서 윤효심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무가 '무너진 희망을 보수하다'를 주제로 설교,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한 김필레 선생의 리더십을 회고했다.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추모예배는 정신여중교 학생과 동문회, 한국YWCA연합회 주관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축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 기자회견



한국YWCA연합회는 흥사단을 비롯한 약 30개 청소년 단체들과 함께 7월 13일(목) 오전 11시 흥사단 강당에서 축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축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소년범죄 현황에 대한 잘못된 데이터에 기인한 것으로 청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후 소년 범죄의 현장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 사진전 오픈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 사진전 '변화를 향해 우리, 햇빛을 들다'를 7월 13일(수)부터 26일(화)까지 2주간 지하철 경북공역사 내에 위치한 서울메트로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경북공역을 지나는 일반시민, YWCA 회원, 관련단체 관계자 등 약 5,000여 명이 관람한 이 사진전은 전시회에 앞서 발간된 100주년 기념 화보집에 수록된 사진들 중에서 정의, 평화, 생명 세상

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여성활동가들의 모습을 선별하여 전시하였다. 전시는 한국YWCA 운동변화에 따라 10개의 연대 기별 전시, Y(Young)와 W(Women)를 주제로 한 테마전시, 영상으로 보는 미디어 아트전시, 참여형 포토존으로 다채롭게 구성하였으며, 4종 기념엽서를 제작하여 한국YWCA의 100년의 활동과 비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10쪽)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 화보집 출판기념회



한국YWCA연합회는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화보집 '변화를 향해 우리, 햇빛을 들다'의 출판기념회를 7월 13일(수) 오후 5시 경복궁역 지하 1층에 위치한 서울메트로미술관에서 진행하였다. 화보집은 1922년~2022년 100년 동안 전개한 YWCA 활동을 한국 역사와 기독교운동사적 맥락에서 총 10개의 연대기로 구분하여 380페이지, 601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었다. 1920년대 여성들의 활동적인 모습, 등 역사적인 사진들과 청(소)년운동, 성평등운동, 탈핵운동 등 최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함께 전개해온 52개 회원YWCA의 활동사진을 담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화보집을 공유하기 위해 E-Book을 제작하여 출판기념회 당일인 7월 13일, 한국YWCA 연합회 홈페이지와 YWCA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하였다.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 화보집 발간 퀴즈 이벤트



한국YWCA연합회는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 화보집 '변화를 향해 우리, 햇빛을 들다' 발간과 사진전 개최를 알리기 위하여 '화보집 발간 기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7월 1일(금)부터

13일(수)까지 카카오톡 채널과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이번 퀴즈 이벤트에는 총 8,489명(카카오톡 채널 8,460명, 인스타그램 29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정답을 맞춘 사람들 중에서 총 122명을 랜덤으로 선정하여 커피 쿠폰을 발송하였다.

2022 YWCA 신입실무활동가 교육



2022 YWCA 신입실무활동가교육이 7월 14일(목)에서 5일(금)까지 이틀 간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되었다. 연합회 외 전국 22개 Y에서 42명이 참가하여 <YWCA 목적론 이해> (구정혜 연합회 사무총장), <YWCA 운동과 운영 이해> (이수진, 홍수진, 김미애, 장세영, 이혜련 연합회 활동가), <YWCA 깊이 만나기> (유성희 평창청소년수련원장, 이천진 한양대학교교회 교목), <YWCA 이벤트 기술공유> (고마음, 손지수, 유에스더 연합회 활동가), <묵상 워크숍>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38쪽)

에큐메니컬 청년학생학원선교 정책 간담회



7월 20일(수) 한국YWCA연합회 W스페이스에서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과 한국YWCA연합회가 에큐메니컬 청년학생학원선교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정책 간담회에는 KSCF 도입방주 사무총장과 장철순, 이광호 간사,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과 조은지 청년부회장, 박은실 국장이 참여하였다. 1968년 이후 YWCA는 KSCF로 통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

을 하기로 결정하고 사안별 연대를 하는 등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독교청년학생운동단체들이 처한 현재의 위기를 공유, 이를 타개하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국YWCA연합회 조은지 부회장은 대학·청년Y 현황과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YWCA목적문에 담긴 기독교정신을 청년들의 관심사와 연결하는 활동으로 대학·청년Y 활성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KSCF는 대학생 회원들의 자치 공부 모임, 마을공동체 탐방, 기독교청년아카데미 등을 통해 기독교학생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나누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캠퍼스 교목실을 통한 학원 선교 기반을 확대하며, YWCA·YMCA와 공동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홍청망청 제프리 친 감독 토크콘서트



다큐멘터리 감독 '제프리 친(Jeffrey Gee Chin)'과의 토크콘서트가 7월 20일(수)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한국YWCA연합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한국YWCA가 '홍청망청-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영화, 문학 등에 관심을 갖는 일반 청소년들에게 진로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홍청망청 프로젝트 중 연극과 영화를 접목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듬튀김' 팀과 코끼리 협동조합 박지민 멘토 외 청소년들이 참여하였고, IMI 파트너즈(주) 김대영 대표가 통역으로 이야기를 전했다. 친 감독은 지식과 경험과 인격을 갖춘 멘토를 만날 것, 장애물이 있어도 끊임없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진할 것,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을 믿을 것 등을 삶의 지혜로 나누었다.

2022 제1차 사무총장 확대운영위원회

2022년 제1차 사무총장확대운영위원회가 지난 7월 20일(수)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구정혜 사무총장 진행 하에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제1차 확대운영위원회에는 사무총장협의회 운영위원회(회장, 총무, 서기, 권역대표, 법인이사 사무총장)



의 권역대표, 도협의회 사무총장 대표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안건으로는 2022년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진행의 건, 회원YWCA 분담금 정책 협의의 건, 한국YWCA 100주년 감사축제 안내의 건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사무총장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를 8월 23일(화)~25일(목), 2박 3일간 수원, 안산지역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연합회·회원YWCA 역할과 기능을 기반으로 회원YWCA 분담금 정책을 협의하였다. 또한, 9월에 진행하는 100주년 감사축제에 회원YWCA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100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Y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8월 23일부터 진행되는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를 통해서 회원YWCA를 이끌어가는 사무총장들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운영과 운동 주체로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데 필요한 원동력과 재정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YWCA 역사포럼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기역과 전망'



한국YWCA연합회는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YWCA 역사포럼'을 7월 22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YWCA 4층 강당에서 진행하였다.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기역과 전망'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손승호 박사((재)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사무국장)는 '일제 강점기 조선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시작과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김은하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는 '해방직후부터 6.25 전후 시기 한국YWCA 살림의 기독교여성운동', 도입방주 총무(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는 '한국기독교학생운동과 YWCA 기독교

여성운동, 광지역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는 '지역청년운동으로의 YWCA 지역여성운동, 이다인 학생(정신여고 학생회장)은 'YWCA 정신이 살아있는 교육을 바라며, 신보미 활동가(청주 YWCA 서부종합사회복지관)는 'YWCA 정신이 살아있는 지역을 바라며'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서정민 교수(일본 메이지구인대학)와 이은영 부회장(한국YWCA연합회)이 토론자로 함께 하여 발제 내용을 더 깊이 있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을 제시하였다.

이번 역사포럼 현장에는 연합회와 김필레션생기념사업회 인사들과 정신여중고 학생들, 연합회 및 회원YWCA 활동가들 그리고 포럼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유튜브에는 YWCA 회원들과 기자, 관련 단체 활동가 등 138명이 참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7쪽)

제 3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경제편 게더타운 개최식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조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 3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경제편 개최식이 7월 23일(토)에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 주제는 기후위기, 성평등, 평화통일 등의 YWCA의 중점 운동과 금융·경제의 관점을 접목한 주제로 공모하였으며, 서류 심사를 거쳐 총 8팀이 선발되었다. 참가자들은 약 5주간의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각 분야별 전문 멘토들의 맞춤형 멘토링과 중간보고회를 거쳐 9월 3일(토)에 최종 본선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7.23 한반도종전평화 문화제 참여

한국YWCA를 비롯한 300여 개 국내외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주최로 7월 23일(토) 오후 2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723 DMZ로 모이자! 휴전에서 평화로!>를 진행하였다. 문화 공연 및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었고, 적대와 전쟁을 멈추고 남북·북미



정상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참가자들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당일 행사장에는 의정부, 광명, 부천, 파주YWCA 및 연합회가 함께 하였으며, 총 1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6쪽)

2022 Y-틴 전국회원대회



8월 6일(토) 2022 Y-틴 전국회원대회가 (사)서울YWCA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YWCA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며 진행된 청소년 전국회원대회로 전국 20개 회원YWCA 청소년들이 함께하였다. Y-틴 전국회원대회의 주제는 '기후위기'로 '요즘 날씨 Y라노'라는 표제어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직접 '레크레이션', '기후위기 상식퀴즈', '청소년 기후강연', '기후 골든벨', '에코 키팅만들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은 Y-틴 인스타그램을 통해 YWCA 100주년 축하 문구와 Y-틴에게 바라는 점 등을 작성하며 Y-틴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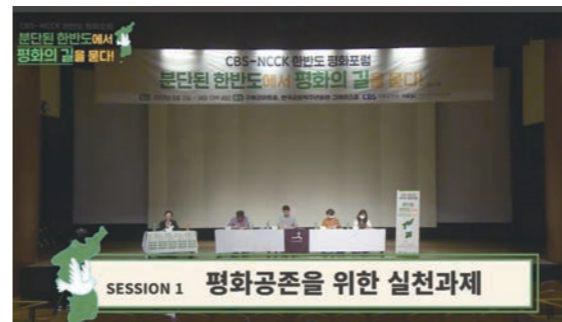
2022 한국YWCA 양성평등임금의날 워크숍

8월 11일(목) 오후 2시부터 2022 한국YWCA 양성평등임금의날 워크숍이 온라인 줌에서 열렸다. 1부 발제의 첫 순서는 김은경 위원장(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회)이 "한국YWCA 동일임금의날 운동의 8년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이어서는 김



난주 박사(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시도별 성별임금격차 연구 결과"를 통하여 현황과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회원YWCA 활동제안을 이규숙 안양YWCA 사무총장이 "양성평등한 노동과 임금을 위한 지역에서의 운동"에 대한 발표를 하였으며 반혜영 창원YWCA 사무총장이 "2021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경남도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워크숍에서는 각 회원YWCA의 활동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앞으로의 성평등 활동에 대한 다짐을 나누었으며 다함께 여성기도문을 읽으며 마무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41쪽)

CBS-NCKK 한반도 평화포럼



CBS-NCKK 한반도 평화포럼이 8월 11일(목)부터 12일(금) 양일에 걸쳐 구세군 아트홀 및 유튜브에서 열렸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하여, 총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성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 비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민(民)의 적극적 평화 만들기, 구체적 사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평화운동만들기를 다루었다.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과 최수신나 국장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YWCA를 비롯한 여성 평화운동의 국내외 활동상을 공유하고 시민사회 과제를 제안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2쪽)

한반도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매년 8.15를 기념하여 남북 및 세계교회가 함께 드리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가 8월 14일(일) 오후 3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열렸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를 주제로 한 NCKK 화해통일위원장 정병주 목사(선한목자교회 시무)의 설교가 있었으며, 향린교회 국악 선교회가 함께 하였다. 올해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은 북측 교회의 합의 없이 남측 초안으로 드러졌다. (기도문은 50쪽)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0주기 온라인 모금



한국YWCA연합회는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0주기를 맞아 '기억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실시했다. 모금은 도너스 온라인모금함을 통해 7월 한 달간 진행됐으며, 모금 목표를 100% 달성했다. 군산 화재참사는 2002년 1월 개복동 유홍주점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여성 종업원 1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 여성들은 인신매매로 팔려와 탈출할 수 없도록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연합회는 이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성매매와 성착취를 근절하고자 '기억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했다. 후원금은 '기억의 공간' 전시에 사용될 예정이며, 전시 일정과 장소는 한국YWCA연합회 SNS를 통해 추후 공지될 계획이다. 회원/후원관리 플랫폼인 도너스를 통해 YWCA 가치와 운동을 알리는 온라인모금함 개설을 시도한 연합회는 회원YWCA가 도너스를 통한 온라인모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1922 장학금 모금 - 청소년 작가들이 소개하는 YWCA SNS툰



한국YWCA연합회는 'YWCA 1922 장학금' 온라인 모금함을 개설하여 8월 31일까지 모금을 진행한다. 모금을 위해 청소년 작가가 YWCA를 소개하는 SNS툰을 2편 제작하고, 이를 SNS를 통해 알리고 있다. SNS툰 1편은 YWCA 심민경 활동가가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일까요?'라는 제목으로, 청소년들도 사회적 이슈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그림을 그렸다. SNS툰 2편은 청소년인 이시네 작가가 스토리와 그림을 제작하여, 8월 24일에 한국YWCA 인스타그램과(@ywcakorea)과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ywca.or.kr)에서 공개하였다. 'YWCA 1922 장학금'은 창립 정신을 기억하고 청소년,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시작되었으며, 지난 5년간 107명의 Y-틴과 대학-청년Y 임원들에게 총 7,58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청소년 작가들이 소개하는 SNS툰을

통해 1922 장학금 모금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제11대 한영수 이사장 선임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제11대 이사장으로 한영수 전 한국YWCA연합회 회장이 선임되었다. 지난 8월 11일(목)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된 한영수 이사장은 연합회 직전회장으로서 회원YWCA 재구조화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동안 책임지고 맡아왔고, 한국YWCA 회관 마스터리스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책임자로서 추대되었다. 앞으로 연합회 조직개편과 회원YWCA 재구조화 이후, 후원회 과제 전반의 문제 해결 방안과 법인의 고유목적 실현을 위한 방향을 마련해갈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YWCA 복지사업단 제6대 이종임 이사장 선임

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 제6대 이사장으로 이종임 전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이 선임되었다. 지난 8월 17일 개최된 복지사업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된 이종임 이사장은 한국YWCA 재구조화에 따라 복지사업단의 신복지운동정책마련 및 산하 사회복지시설 재정비 등의 중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YWCA 복지운동의 새로운 모델 개발 및 구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은 YWCA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운동 지원 및 YWCA 복지모델 구현을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되었다.

신임 이사장 소개



한영수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장

YWCA 경력
- 1968-197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Y 회원
- 1970-197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Y 회장
- 1992-2000 한국YWCA연합회 위원
- 2000-2009, 2011-2021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 2003-2005 한국YWCA연합회 복지사업위원회 위원장
- 2006-2008 한국YWCA연합회 임원(제1회계)
- 2011-2012 한국YWCA연합회 은학의집운영위원회 위원장
- 2012-2013 한국YWCA연합회 기획행정팀장(홍보출판위원장)
- 2014-2015 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 한국YWCA연합회 생명평화위원회 위원장
- 2014-2017 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 이사
- 2016-2017 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 회원Y협력지원위원회 위원장, 인사위원회 위원장, 연변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8-2020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장
- 2020-2022 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이종임
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

YWCA 경력
- 1967-1969 배화여고 토포즈클럽(Y-teen) 회장, 전국 Y-teen 협의회 부회장
- 1971-1972 대학Y-teen Advizion 회장
- 2005-2021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 2005-2006 대한YWCA연합회 행정위원회 위원
- 2006-2008 대한YWCA연합회 사회개발위원회 위원
- 2011-2012 운동교 생명운동팀, 생명비전연구소 팀장
- 2014-2015 회원Y협력지원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 위원
- 2016-2018 한국YWCA연합회 임원(제2회계), 장학위원회 위원장, 탈핵생명위원회 위원
- 2018-2020 한국YWCA연합회 제2 부회장, 장학위원회-탈핵생명위원회-시니어 준비위원회 위원장, 인사위원회, 회원Y협력지원위원회-100년사 준비위원회-모금행사준비위원회 위원
- 2018-2020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
- 2020 연합회 구조연구 TF 위원
- 2020-현재 인사위원회 위원
- 2022-현재 공천위원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후원현황



(2021~2022.8.20까지/약정포함/단위 : 원)

1. 100주년사업 후원

후원종류	구분	금액	후원종류	구분	금액
100주년 기념사업 후원	개인	143,903,600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개인	52,990,000
	회원YWCA	16,350,000		회원YWCA	17,200,000
	기업/단체	114,232,000		기업/단체	33,000,000
소계		274,485,600	소계		103,190,000
		총계			377,675,600

1) 개인 후원

성명	금액	비고	성명	금액	비고
강교자 명예연합위원	3,000,000		오영란 연합회 전 실행위원	1,000,000	
고미연 제주YWCA 회장	2,000,000		오초녀 순천YWCA 증경회장	100,000	
권오형 연합회 회계감사	1,000,000		유성희 연합회 전 사무총장	1,000,000	
권해영 새문안교회 권사	1,000,000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100,000	
김말숙 인천YWCA 증경회장	100,000		이봉진,故 고의순 연합회 위원	1,000,000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50,000,000	화보집 제작	이순희 안동YWCA 회장	100,000	
김미경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	100,000		이연배 서울YWCA 증경회장	3,000,000	
김미애 연합회 팀장	100,000		이은영 연합회 부회장	273,600	
김병찬/임정임 연합회 간사	200,000		이옥식 광주YWCA 증경회장	1,000,000	
김성자 제천YWCA 증경회장	1,000,000		이종경 연합회 전 사무총장	3,000,000	
김성희 에듀툴킷 대표	100,000		이종임 복지사업단 이사장	1,000,000	
김수연 연합회 팀장	100,000		이행자 명예연합위원	3,000,000	
김숙희 100주년 공동위원장	3,000,000		이혜련 연합회 부장	100,000	
김순영 순천YWCA 증경회장	100,000		임진영 연합회 부장	100,000	
김연자 순천YWCA 증경회장	500,000		장원자 수원YWCA 전 관장	100,000	
김은경 연합회 이사	1,000,000		장혜선 크레비스파트너스 이사	100,000	
김은경 연합회 전 사무총장	980,000		장혜숙 광주YWCA 증경회장	1,000,000	
김자영 인천YWCA 사무총장	100,000		추신애 연합회 증경회장	1,000,000	
김재신 연합회 감사	1,000,000		전배자 강릉YWCA 증경회장	100,000	
김재화 명예연합위원	2,000,000		진화성 후원회 이사	1,000,000	약정
김주원 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50,000		정동신 청주YWCA 증경회장	1,000,000	
김진용 차의과학대 교수 연합회 자문위원	300,000		정서연 연합회 팀장	100,000	
김태년 천안YWCA 증경회장	500,000		정이숙 목포Y 증경회장	1,000,000	
김태련 아이코리아 회장	200,000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50,000	
김형 명예연합위원	3,000,000		정진아 의정부YWCA 사무총장	100,000	
김형남 전주YWCA 증경회장	100,000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사무국장	50,000	
노인자 인천YWCA 회장	200,000		최정숙 대구YWCA 증경회장	1,000,000	
류인숙 제천YWCA 사무총장	200,000		최지영 연합회 팀장	50,000	
문상순 울산YWCA 증경회장	1,000,000		최만자 연합회 전 임원	3,000,000	
박종희 의정부YWCA 증경회장	1,000,000		채수일 경동고교 담임목사	500,000	
박호권 한국YMCA연맹 국장	100,000		최형선 연합회 전 임원	200,000	
배윤례 하남YWCA 증경회장	100,000		표대중 노무법인 길 대표	1,000,000	
백수미 속초YWCA 사무총장	50,000		하신규 부산Y 증경회장	1,000,000	
이현순 부천YWCA 사무총장	50,000		이행여 남양주YWCA 증경회장	100,000	
송기영 법인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300,000		함종민 크레비스파트너스 이사	100,000	
신인숙 연합회 전 부장	200,000		함희경 연합회 이사	1,000,000	
신정원 하남YWCA 사무총장	100,000		홍수진 연합회 팀장	100,000	
신현채 수원YWCA 증경회장	300,000		홍인숙,故 서희진	20,000,000	
안재용 YMCA유지재단이사장	300,000		황혜숙 연합회 전 임원	10,000,000	
연합회회장단 (원영희 조은영 이은영)	10,000,000		양서영, 이예린, 이은정	50,000	
		소계 (82명)			143,903,600

2) 후원YWCA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강릉YWCA	100,000	부산YWCA	1,000,000	원주YWCA	100,000	포항YWCA	200,000
거제YWCA	300,000	부천YWCA	50,000	의정부YWCA	200,000	하남YWCA	100,000
고양YWCA	100,000	(사)서울YWCA	1,000,000	익산YWCA	100,000	YWCA	
광명YWCA	50,000	사천YWCA	300,000	제천YWCA	100,000	전국증경회장단모임	5,000,000
광양YWCA	100,000	사천YWCA	50,000	진해YWCA	100,000	2021	
(사)광주YWCA	1,000,000	성남YWCA	50,000	창원YWCA 이사회	500,000	경상권역협의회 회장단	100,000
군산YWCA	300,000	속초YWCA	100,000	천안YWCA	200,000	2022	
김해YWCA	100,000	안동YWCA	100,000	춘천YWCA	100,000	경상권역협의회 회장단	1,000,000
남양주YWCA	100,000	안산YWCA	100,000	충주YWCA	200,000	2022	
남원YWCA	1,000,000	안양YWCA	500,000	통영YWCA	300,000	경상권역 사무총장협의회	500,000
동해YWCA	500,000	양산YWCA	300,000	파주YWCA	50,000		
마산YWCA	100,000	(사)울산YWCA	100,000	평택YWCA	100,000	소계 (42곳) 16,350,000	

3) 기업/단체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김필레션생기념사업회	5,000,000	소비자시민모임(문미란)	500,000	홍사단(박단규)	500,000
국무총리실	1,000,000	여성평화외교포럼	100,000	대상(주)	3,300,000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100,000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100,000,000	서울우유	1,000,000
대한어머니회중앙회(박에스터)	100,000	한국YMCA전국연맹	1,000,000	한솔사무기기	100,000
소비자공익네트워크(김연화)	100,000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100,000	의류바자회수입	932,000
소비자교육중앙회(주경순)	200,000	한국여성단체연합(김민문정)	200,000	소계(17곳) 114,232,000	

2. 세상을 만드는 100개의 프로젝트

1) 개인 후원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강남파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유성희 연합회 전 사무총장	1,000,000
고미연 제주YWCA 회장	1,000,000	유태규/김경천 광주YWCA 전 사무총장	1,000,000
구정혜 연합회 사무총장	1,000,000	이숙현 연합회 전 임원	3,000,000
김경희 수원YWCA 증경회장	1,000,000	이유림 서울YWCA 회장	1,000,000
김덕순 울산YWCA 회장	1,000,000	이은영 연합회 부회장	1,000,000
김순영 전 감리교 전국여교역자회 회장	1,000,000	이재홍/박동순 연합회 국장	1,000,000
김애자 목포YWCA 증경회장	1,000,000	이정수 소협 사무총장	100,000
김영희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3,000,000	이종경 연합회 전 사무총장	2,000,000
김은숙 목포YWCA 전 사무총장	1,000,000	이종임 복지사업단 이사장	1,000,000
김주현 전 파이낸셜뉴스 사장	2,000,000	이주영 서울YWCA 증경회장	2,000,000
나은실 후원회 전 이사	1,000,000	이주영 연합회 부장	1,000,000
명진숙 은학의집 관장	1,000,000	이혜경 목포YWCA 증경회장	1,000,000
문영희 제주YWCA 전 증경회장	1,000,000	이희정 연합회 팀장	100,000
박경미 이화여대교수	300,000	임국미 대전YWCA 증경회장	1,000,000
박금자 강릉YWCA 증경회장, 증경회장단모임 회장	1,000,000	정 속 안양YWCA 증경회장	100,000
박봉림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정혜순 김필레기념사업회 회장	1,000,000
박용욱 사)3.1 여성동지회 회장	1,000,000	조은영 연합회 부회장	1,000,000
박윤애 연합회 이사	1,000,000	조은지 연합회 청년부회장	50,000
배영자 대구YWCA 증경회장	1,000,000	차경애 명예연합위원	1,000,000
백소영 연합회 이사	1,000,000	최현자 청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서다미 대학·청년YWCA협의회회장	50,000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1,000,000
신현주 청주YWCA 전 관장	100,000	한영수 후원회 이사장	1,000,000
연합회 국장(박동순, 박은실, 배정미, 송록희, 최수산나)	1,000,000	함희경 연합회 이사	1,000,000
연합회 부장(안정희, 이주영, 이혜련, 임진영, 홍현정)	1,000,000	홍인숙 퀸즈YWCA 고문총무	1,000,000
오경애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홍기자 전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원영희 연합회 회장	1,000,000	김미숙 박은정 신옥희 신정아 윤세경 이예민 유애람 유옥진 유정현 최경선 황미선	190,000
유도희 여수YWCA 증경회장	1,000,000	소계 (71명) 52,990,000	

2) 후원YWCA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논산YWCA	100,000	(사)세종YWCA	1,200,000	(사)전주YWCA	1,000,000	사)청주YWCA	1,000,000
(사)대구YWCA	1,000,000	(사)수원YWCA	1,000,000	(사)제주YWCA	1,000,000	은학의집	1,000,000
(사)대전YWCA	1,500,000	(사)순천YWCA	1,000,000	진주YWCA	1,000,000	2019 5부지역위원장 (김옥순 권경미 조철숙 양애자 홍순옥)	1,000,000
사)목포YWCA	1,000,000	(사)여수YWCA	1,000,000	진해YWCA	1,000,000	소계 (18곳) 17,200,000	
사)서귀포YWCA	1,000,000	(사)인천YWCA	400,000	창원YWCA	1,000,000		

3) 기업/단체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한국부인회총본부(남인숙)	100,000	(주)농심	1,000,000	사회혁신기업 더함	1,000,000
한국소비자교육원	100,000	농협 명동지점	200,000	삼성전자	1,000,000
CJ제일제당	1,000,000	네이버	3,000,000	(주)샘표식품	1,000,000
(주)NS홈쇼핑	5,000,000	대한기독교서회	1,000,000	(주)아모레퍼시픽	2,000,000
(주)SPC	1,000,000	동서식품(주)	1,000,000	한국야쿠르트	1,000,000
(주)오뚜기	1,100,000	롯데제과(주)	1,000,000	홈플러스(주)	5,000,000
럭스나인(주)	5,000,000	매일유업(주)	500,000	(사)기업소비자협회(OCAP)	1,000,000
소계 (21곳)		33,000,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22. 6. 28 ~ 2022. 8. 16)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승아, 강현종, 고세영, 각지역,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나착더르즈 돌람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문병식,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욱, 박은실, 박진화,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영미, 이영숙, 이예림,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지운, 이찬형, 이찬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차경애, 천유란, 최수산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1,685,000
누계		1,685,000

YWCA 1922 장학금 / SNS톤 모금현황

(2022. 1. 1 ~ 2022. 8. 1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고이나, 구정혜, 도방주, 돌람수렌, 박문경, 박은실, 김병찬/임정민, 신성균, 배정미, 안정희, 안혜숙, 이숙현, 이종님, 이종식, 이주영, 조은영, 김형남	910,000
회원YWCA	강릉YWCA, 광주YWCA, 대전YWCA, 동해YWCA, 목포YWCA, 부산YWCA, 서울YWCA, 인천YWCA, 전주YWCA, 체천YWCA, 춘천YWCA, 하남YWCA	5,379,350
합계		6,289,350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0주기 온라인 모금현황

(2022. 7. 1 ~ 7. 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고미연, 구정혜, 김난주, 김다영, 김마숙, 김병찬, 김성희, 김수연, 김신정, 김은주, 김은희, 김진용, 김충민, 김혜연, 나착더르즈 돌람수렌, 남궁혜경, 박규덕, 박동순, 박문경, 박은실, 배정미, 서순아, 송록희, 송소연, 심민경, 안정희, 양서영, 윤수정, 이영미, 이수진, 이예림, 이은영, 이재경, 이종임, 이주영, 이지운, 이현주, 이혜련, 이희정, 임행심, 장세영, 정서연, 최미선, 최수산나, 최수진, 최유주, 한영수, 함석임, 함희경, 홍미경, 홍수진, 홍현정	1,090,000
합계		1,090,000

경인·강원권역

강릉YWCA

양은서 간사

환경교육프로그램 '알쓸탄잡' 진행



강릉YWCA는 7월 6일(수)과 7일(목)에 강릉유치원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 '알쓸탄잡'(알아두면 쓸데 있는 탄소 잡학사전)을 진행하였다. 각 3개의 반, 20명씩, 총 6회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첫째 날에는 탄소중립 이론수업과 EM만들기 실습을 직접 해봄으로써 탄소중립의 개념을 알려주고, 가정에서 쉽게 버려지는 쌀뜨물로 청소, 세탁 등 천연세제로 재탄생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둘째 날에는 식물화분 만들기 수업과 똑똑한 환경교육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활동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동해YWCA

정미숙 팀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여름휴가지 피서철 합동캠페인 실시



동해YWCA는(회장 홍성주) 7월 28일(목) 저녁 망상해변에서 동해시청 및 동해경찰서 등 민관기관과 함께 피서철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여름휴가철 피서지에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환경 대상 점검·단속과 피서지에 있는 일반시민들에게 계도·홍보 캠페인으로 진행되었다.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사)서울YWCA 창립 100주년 미래포럼



(사)서울YWCA는 7월 14일(목) '서울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 100년,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다시 공동체를 외치다'를 주제로 <창립 100주년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포럼은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한킴벌리 포용과 다양성 부문 최고책임자였던 김혜숙 고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현아 활동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장근지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100년간 지속해온 (사)서울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과 시사점을 짚어보고, 초개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독교여성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속초YWCA

김다미 간사

고성 제진역으로의 평화기행



속초YWCA는 6월 17일(월) 실무활동가와 자원활동가 14명이 함께 고성 제진역으로 평화기행을 다녀왔다. 고성 제진역은 DMZ 민통선 안에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 열차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전망대 출입 신고소에 들러서 출입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민통선 군 검문소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제진역에서 출발하는 PTX 평화통일열차는 금강산, 원산, 평양, 백두산을 연결하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어 유럽을 기차로 여행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을 마치고 다시 제진역 역사로 들어오면 입경장을 볼 수 있다. 체험을 통해 통일 미래의 꿈을 경험하며 이 땅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다.

원주YWCA

양지영 간사

종교인 환경교육 '탄소중립 알아보기' 진행



원주YWCA는 6월 22일(수)와 7월 20일(수) 오후 1시부터 회차당 20명 총 40명에게 종교인 환경교육인 '탄소중립 알아보기'를 진행하였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발생의 원인을 알아보고,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과 탄소중립의 개념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총 4회차로 9월 28일(수)와 10월 19(수)일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인천YWCA

유지혜 간사

2022 (사)인천YWCA 후원의 밤 행사



(사)인천YWCA는 7월 7일(목) 내·외빈 100여명을 모시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및 (사)인천YWCA 목적사업 후원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 「나 그리고 Y 청년을 세우다」를 7층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후원의 밤 행사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영상, 20대 청년들이 꾸미는 작은 음악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돕고, 청년을 세우기 위한 (사)인천YWCA의 후원의 밤 행사의 취지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춘천YWCA

송영주 간사

EM발효액 무료 배포의 날

춘천YWCA는 7월20일(수)에 EM발효액을 무료로 배포하였다. 춘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익한 미생물 발효액을 만들어 일상



에서 널리 쓰는 각종 세제 대신 EM발효액을 사용하면 가족의 건강뿐 아니라 자연을 소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공유하였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달 셋째주 수요일에 EM발효액을 무료로 배포 할 예정이다.

경기권역

(사)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평화가 밥이다



(사)고양YWCA는 6월 13일(월), 6월 22일(수)부터 7월 20일(수)까지 총 6회에 걸쳐 평화를 품은 소풍길 '평화가 밥이다'를 진행하였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이야기, 평화와 젠더, 인권, 평화로운 환경이야기, 세상은 관계 속에 있기, 1인 평화활동가를 꿈꾸며를 내용으로 담았으며 난민, 제주 4.3, 한국전쟁 등을 통해 평화의 의미를 확장하고 인권보따리 활동을 통해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밀양 송전탑 사건 관련 다양한 환경 그림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며 평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들을 나누었다. 또한 평화를 품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노사이드 전시관, 위안부와 난민 전시관을 관람하고 평화활동가로서 스스로 생각하는 생각을 담아 평화 팝업북 활동을 하였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광명시 여성의원 정책 간담회



6월 28일(화) 광명갑 국회의원 임오경 사무실에서 여성단체(광명YWCA, 광명여성의전화)가 광명시 여성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3명의 시의원 여성 당선인이 참석했다. 광명YWCA와 광명여성의전화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제안했던 '민주주의의 완성,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광명시' 성평등 정책을 공유하고 쟁점이 된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 진행 사항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광명시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원내 활동을 요청하였다. 당선인들의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계획을 듣고 앞으로 여성 정책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백합회 구직 회원들과 함께한 야외회



남양주YWCA는 6월 11일 토요일 백합회 구직 회원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야외회를 가졌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화담숲"과 "도자공원"을 방문하여 모노레일을 타며 자연경관을 구경하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는 시간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도자공원에서는 장기자랑과 보물찾기 등 회원들과의 즐거운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며 동료들간의 우애를 한번 더 다짐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성남YWCA 장옥현 사무총장
기후위기 환경교육 진행



성남YWCA는 지난 7월 12일(화)과 21일(목), 2회에 걸쳐 50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후원(시스템베이스)을 받아 '기후위기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재앙의 현실을 알고, 교육을 통해 환경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며, 향후 변화의 주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친환경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사)수원YWCA 강은진 주임
2022 장애인평생학습도시 '모두를 포용하는 모두의 SDGs'



(사)수원YWCA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과 수원특례시와 함께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6월부터 진행 중이다. 모두가 평등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모두를 포용하는 모두의 SDGs'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장애인 시설과 함께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15조의 2(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의거하여 장애인 평생학습의 선진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원시는 공공기관 주도의 프로그램이나 획일적 지원을 탈피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평생학습 제공 기관의 특성을 활용해 내실을 다지고자 4개 구별 지역 거점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사)수원YWCA는 수원시 장안구를 맡아 시민단체 주도로 지역 내 장애인시설과 연계하여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시민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전문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슬기로운 환경생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 프로그램을 2

곳의 시설에서 교육진행 예정이다.

(사)안산YWCA 홍지인 팀장
초록에너지 적정기술학교 활동 평가회



(사)안산YWCA는 7월 14일(화) 경기 방과 후 마을학교 '초록에너지 적정기술학교' 1학기 수료식을 마친 후 활동 평가회를 개최했다. 경기 방과 후 마을학교는 안산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1, 2학기 운영되며, 학기별로 에너지와 연계한 적정기술 교육을 총 11회에 걸쳐 진행한다. 방과 후 마을학교는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적정기술과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소질과 진로 적성을 개발하고, 방과 후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사)안양YWCA 문찬미 간사
옥시, 애경에 대한 규탄대회 및 제품 불매운동



(사)안양YWCA는 7월 22일(화), AK(애경)플라자 금정점 앞에서 군포, 안양시민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애경그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1년째 아직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대책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옥시와 애경 두 기업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 애경그룹은 '돈이 없다'며 책임을 피하면서 AK플라자를 열었다고 규탄했다. 애경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다할 때가

지 불매운동에 참여하여 피해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의정부시장에게 성평등정책 강화요구



의정부YWCA는 김효숙 회장을 포함한 실행임원단 6명과 정진아 사무총장이 지난 7월 15일(금) 새로 취임한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취임 축하인사와 함께 여성친화도시인 의정부시의 여성정책이 축소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담아 '성평등 정책 요구서'를 시장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및 학생의 성인지교육 지속의무화, 성별임금격차 개선, 여성대표성 확대와 역할강화, 공공디자인과 건축물의 성인지적 관점 설계, 성평등 전담관 배치, 성평등(문화)센터 건립 등의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의정부 시민들의 교통의 요지인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도 전달하였다.

하남YWCA 김유진 간사
쓰담 걷기 캠페인 진행



하남YWCA는 지난 6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다함께 평화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약 60여 명의 참여자(하남YWCA 이사, 회원, 자원봉사자)들의 남북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현대베스코아 상가 주변과 덕풍천 쓰담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인 1조로 조를 이루어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만든 쓰레기 봉투가방과 쓰레기 집게를 가지고 쓰레기를 주우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되살리고 쾌적한 덕풍천 산책로를 조성하

는 데에 힘썼다. 또한, 쓰담 건기를 마무리하고 덕풍천 다리 밑에서 '하남큐직캠프'의 버스킹 공연을 함께 참여자들과 보며 좋은 시간을 보고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들도 함께 평화통일 기원 캠페인에 동참하며 '다함께 평화를 외치다!'라는 주제를 외치며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조은숙 주임

청소년 재난안전 골든벨 리더십 캠프



(사)논산YWCA는 썬밸여자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재난안전 골든벨 리더십 캠프'를 진행하였다. 이날 참여 한 128명의 학생들은 재난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재난 골든벨과 안전팀 빌딩 활동을 통해 협동하는 과정 속 파이프라인 비상탈출에 대해 배우며, 안전에 대해 재난의 경각심과 안전문화의식을 제공해 다양한 상식과 지식을 습득하는 올바른 청소년 리더십 재난을 탐색 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재난안전 '골든타임' 리더십캠프를 통해 안전 체감도를 경험하고 청소년들의 위험 불감증과 주변 위험 상황에 민감하고 안전의식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육구가 증가하고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안전한 캠퍼스 환경조성을 위한 여성안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사)대전YWCA는 최근 20~30대를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범죄가 대학가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취약지역이 없도록 대학 내 순찰,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일

까지 대전시 5개의 대학교(대전과학기술대, 대전대, 배재대, 충남대, 한남대)를 대상으로 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방학을 맞이하여 7월 12일(화)부터 7월 29일(목)까지 범죄 취약지로 선정된 대전시 각 지역의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범죄 예방시설물을 점검·순찰하는 활동을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과 우범지역의 범죄 예방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인 학교내외 순찰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세종YWCA 장은정 부장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과정 진행



(사)세종YWCA는 지난 4월부터 회원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과정을 진행하였다. 1차 교육으로 11명이 정리수납전문가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교육과정을 마친 회원들이 (사)세종YWCA 손길봉사클럽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손길봉사클럽은 6월 25일(토) 조치원에 있는 한부모가정의 집을 방문하여 정리수납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배운 것을 나눔으로 승화시켰다. 앞으로도 정리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EM쌀뜨물 발효액 무료 배급

제천YWCA에서는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쌀뜨물로 만든 EM발효액"을 6월부터 무료로 배급하고 있다. 제천YWCA 봉사단을 구성하여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쌀뜨물을 이용하여 EM발효액을 만들고 발효된 EM을 재활용 패트 용기에 담아 관내 행정복지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제천YWCA 건물 내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EM의 유용성을 알리고 하천 및 바



다오염의 주범인 쌀뜨물을 이용한 발효액 제조방법과 활용방법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EM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습관을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EM보급 활동 및 EM환경교실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YWCA 곽효정 팀장

지역과 함께하는 그린라이프, 공론화위원회 실시



천안YWCA는 7월 27일(수) 「지역과 함께하는, 그린라이프」 사회적 책임을 위한 참여기업 엘케이엠과 1차 공론화위원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참여기업과 지역사회 환경활동가, 시민활동가가 불필요한 스티커, 과대포장을 없애고 친환경 제품 전환, 생산확대 및 인식전환을 위해 참여기업의 제품을 사전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천안YWCA에서는 참여기업 엘케이엠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엘케이엠은 제로웨이스트 실천운동 및 거리캠페인 참여를 약속하였다. 향후 천안YWCA는 6개의 기업체·소상공업체와의 친환경 제품 생산 확대 및 인식전환을 위해 12회의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청주YWCA 한기연 팀장

농민과 함께하는 신선한 직거래 장터 "반짝! 알맹이장터"

(사)청주YWCA는 6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회관 앞마당에서 플라스틱 없는 장터, 농민과 함께하는 신선한 직거래 장터인 '반짝! 알맹이장터'를 진행하였다. 지난해 이어 이번에도 진행되는 장터에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



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장비구니와 종이봉투, 그리고 신문지를 재사용해서 만든 신문지봉투, 다회용기를 직접 사용하도록 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가 알맹이만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는 장터를 추구하였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농부와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충주YWCA 김성화 간사

제1기 여성정치학교 개강



충주YWCA는 금년도 두 번의 선거과정을 겪으며 남녀의 편가르기, 세대간 갈등을 발생시키는 정책들을 보면서 여성정치의 현실을 바로 알고자 '제1기 여성정치학교'를 개강하였다. 6월 2일(목)~30일(목) 매주 목요일 5회에 걸쳐 진행된 본 교육에는 5명의 전문강사를 초대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 성인지에산의 이해, 성주류화 정책의 이해, 여성정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본 교육에 33명의 지역여성들이 참여하여 정치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지역에서 활동방향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

경상권역

거제YWCA 나선주 간사

해양환경정화활동 진행



거제YWCA는 환경재단과 코카콜라 바다쓰담 지원사업인 해양환경정화활동을 지난 6월 16일(목)과 23일(목), 7월 26일(화) 3차례 실시하였다. 해양환경정화활동은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올해 총 7회 실시할 계획이다. 바다에 밀려온 플라스틱종류의 생활쓰레기 및 페어구, 폐자재 등 다양한 쓰레기들의 집합소이다. 1회 정화활동 시 약 1톤 이상의 쓰레기들의 수거하고 있어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더운 날씨에 활동을 진행하여 다소 힘든 부분이 많지만 환경을 위한 일이라 봉사자들 모두 큰 만족함을 느끼고 있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정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소 운영



김해YWCA는 6월부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소 사업을 시작하였다. 플라스틱 업사이클링과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김해시민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플라스틱 병뚜껑을 수거, 분쇄하여 치약짜개, 비누받침대 등의 새로운 제품으로 제작하는 자원순환소 운영과, 환경교육을 정보전달이 목적이 아닌 실천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품의 만드는 방법과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사회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 형태로 진행한다. 자원순환소 운영을 위해 지역의 환경에 관심이 많은 '꿀벌 활동가'를 모집하여 플라스틱병뚜껑을 수거, 자원순환

의 의미와 목적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다. 현재 경남지역에서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제품 생산 및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많은 환경단체들이 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변화에 따라 플라스틱이 배출되지 않도록 업사이클링 교육과 연계한 제품 생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교육 기관은 적은 편이다. 이에 김해YWCA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재사용과 업사이클링을 통해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사)대구YWCA 김은혜 간사
민주시민활동가 아카데미 '민주네 도서관' 수료식



(사)대구YWCA는 6월 7일(화)을 시작으로 하여 7주간(매주 화요일) 민주시민활동가 아카데미 '민주네 도서관'을 진행하였다. 7월 19일(화)에 수료식을 가졌고, 총 15명의 실무활동가가 수료했다. 5주 동안 다양한 주제의 이론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후 2주 동안 대구여성의 역사를 알아보는 반지길과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는 9월에는 주제별 학습 성과공유 및 시민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별 이론 교육과 현장 탐방의 통합적 교육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마산YWCA 강현영 간사
에너지 미닝아웃(meaning out) 페스티벌



마산YWCA는 6월 16일(목) 월영SK오션뷰 아파트에서 에너지 미닝아웃(meaning out)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에너지 미닝아웃이란 요즘의 가치 소비 트렌드의 '미닝아웃' 뜻처럼 착하고 의미 있는 에너지 소비를 통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홍보하여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오후에 열린 행사에는 '환경'과 관련하여 태양광 자동차, 양말목 브로치, 천연 주방세제바, 공기정화식물 개운죽 만들기 부스와 더불어 환경 지식을 높여줄 퀴즈 맞추기 등 이벤트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페스티벌을 통해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가치 소비를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에너지 페스티벌 행사를 오는 10월 1일(토) 월영SK오션뷰 프리아마켓과 함께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사)부산YWCA 여진경 부장
(사)부산YWCA 창립 76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식



(사)부산YWCA는 7월 5일(화) 11시 30분부터 창립 76주년을 맞아 75년을 인도하시고 사단법인으로 새로운 1년을 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와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감사예배는 해운대제일교회 심옥섭 담임목사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설 어린이집 6세반 어린이들의 활기찬 특별찬양으로 참석자들 모두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는 기념식을 통해 한국YWCA의 역사와 목적에 대해 되새겨 보았고, 지부 직원들의 영상을 통해 지나온 75년과 새로운 1년을 맞이하는 축하와 소망을 들을 수 있었다.

사천YWCA 송주은 간사
사천시 주민복지박람회 진행



사천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6월 10일 ~11일(금,토) 이틀간 삼천포종합운동장에서 사천시 주민복지박람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사천YWCA는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운동의 일환으로 행사장에서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일회용 물병을 가져오면 아이비나 행운목과 같은 수생식물과 EM발효액을 담아가는 체험을 진행하여 시민 인식개선과 행사장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용기가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과 소비생활의 불편함을 상담하는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도 함께 진행하였다.

(사)양산YWCA 김유경 간사
(사)양산YWCA 지역 여성들, 사회 문제 함께 고민하다



(사)양산YWCA(회장 박혜숙)는 지난 14일 지역 여성들의 시민 주체성 확보와 여성활동가 정책현장의 공유 및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위한 '양산여성 거버넌스'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풀뿌리 여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한 사회'를 주제로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박경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양산시지부(회장 류은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환경활동가 사공혜선) ▲양산시 여성의용소방대(회장 이옥심) 등 돌봄·안전·환경·일자리 총 4개 분야 현장활동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젠더 관점에서 함께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현안과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장의 의견을 개진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Bottom-up(상향식) 방식의 정책 개선안 수립 구조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여성단체 네트워크 회원, 다양한 분야의 현장활동가, 컨설턴트, 시민 등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정책이 행정 중심의 내적 과정으로 축소되지 않고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에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목소리를 모았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사)울산YWCA 창립40주년 기념식



6월 8일(수)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사)울산YWCA의 창립4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조명화 부회장의 예배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박용남 목사(더사랑교회)의 기도, YWCA 및 부속시설 직원들로 구성된 YWCA 중창단의 특송으로 '함께'의 테마로 꾸러졌다. 이어 김기현 목사(대흥교회)가 '플레이 메이커'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 양성태 목사(태화교회)의 축도로 1부 감사예배가 마무리 되었다. 2부 기념식은 창단 40주년을 맞은 (사)울산YWCA여성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포문을 여며, '기억하다. 되새기다 40년의 YWCA'의 주제로 40년간의 (사)울산YWCA의 역사를 영상으로 시청하였다. 이후 김덕순 회장의 인사말씀으로 와주신 내빈들께 감사인사와, 창립기념식에 대한 감회, (사)울산YWCA의 앞으로를 향한 다짐을 전했다. 지역 내의 여성단체로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 여성의 권리와 청소년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사)울산YWCA의 모든 실무자, 자원활동가, 후원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진주YWCA

윤인주 간사

『환경 함께하기』, 『이웃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 진행



진주YWCA는 LH부동산금융사업단과 함께 기후생명운동을 다양한 실천방법으로 연간 전개하기로 약속하며 6월 22일(수) 『환경 함께하기』, 7월 21일(목) 『이웃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환경 함께하기』 행사에서는 제로웨이스트

트 실천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재활용 아이스팩 방향제만들기, 로컬푸드-토종종자 교육과 우리 밀 나눔 스콘만들기 등의 활동이 있었으며, 이후 확장활동으로 기후위기사대 더 가중되어 가는 양극화의 상황 속에 위기일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의 이웃을 위해 『이웃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취약한 상황의 100여 가구에 여름이불과 제로웨이스트 제품, 로컬푸드로 구성된 여름나기물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였다.

진해YWCA

서지원 간사

진해석동 정수장 수돗물 갈따구 유충 검출 원인인과 대책 촉구



진해YWCA는 7월 7일(목) 오전에 창원시 3개 정수장 중 하나인 진해구 석동정수장에서 갈따구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고 주민신고가 접수되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인 여성의전화, 창원물생면시민연대,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등과 연대하여 수차례 기자회견, 정수시설과 취수장 답사, 특별조사위원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 발견과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수 문제 해결을 위해 여름철 한시적 보개방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을 차별하는 환경부 규탄과 갈따구 유충 발견 36시간 만에 발표한 창원시의 늑장대응을 질타하였다. 물오염은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대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창원YWCA

윤승희 간사

『늬 나이가 어때서, 기억 특특』 지역 노인 대상 사회 실험 진행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코로나 19와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노인들의 고립감과 우울감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고령화 문제는 개인과 가족 단위에서 해결 불가능하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에 (사)창원YWCA에서는 6월부터 『늬 나이가 어때서, 기억 특특』이라는 주제로 지역 노인 대상 사회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1대1 우울감·고립감 척도검사



와 잃어가는 기억의 속도를 늦추는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자신의 일평생을 회상하여 『인생 스토리 북』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실험을 통해 노인들은 고립감과 우울감을 완화하고, 지자체에는 바람직한 노인 정책 모델을 제시하여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통영YWCA

변은실 과장

그린리더육성 프로그램 진행



(사)통영YWCA는 통영시 환경교육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6월 14일(화)부터 7월 1일(금)까지 총 7회기로 그린리더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생활 속 환경 실천가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에너지 전환, 올바른 분리배출, 탄소중립 목표수립 등을 배움으로 환경 민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육성된 그린리더를 중심으로 하여 하반기에 지구사랑 페스티벌을 통해 통영지역에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 민감도를 가질 수 있도록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지역내 취약계층에 여름이불 & 생필품키트 나눔

포항YWCA는 6월 22일(수) 포스코1%나눔재단 지원사업으로



포항시 지역내 홀몸어르신,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200 가정에 여름 차렵이불과 생필품키트를 전달했다. 이불 나눔은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생활이 뒷받침 되어야 할 지역 취약계층들의 낡은 이불을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으며, 간편 식품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도 전달하였다. 치솟는 물가와 폭염으로 힘든 한하지만 생필품 키트와 이불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소외·취약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다양한 지원을 할 생각이다.

전라·제주권역

광양YWCA

이효진 주임

소비자 피해예방과 여름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광양YWCA는 지난 7월 21일(목) 오전11시에 광양읍 5일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예방과 여름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광양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문화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홍보하고,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피서지의 불법적인 이용료 징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우려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물가안정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사)광주YWCA

서정현 국장

광주YWCA 100주년 기념 평화포럼
“우크라이나 피난민 고려인동포 귀환돕기 및 정착방안” 토론회



(사)광주YWCA는 지난 7월 27일(수) 1층 대강당에서 ‘우크라이나 피난민 고려인동포 귀환돕기 및 정착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고려인 동포의 실질적인 귀환 돕기와 정착 방안을 토론향하는 자리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 국내에 입국 후 정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고려인 동포의 삶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제발제는 ‘고려인 마을에서 부는 평화의 바람’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다음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귀환 돕기 지정 후원금으로 (사)광주YWCA 일천만원과 소심당 조아라상 상패와 오백만원을 전달하여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동포의 조속한 국내 귀환을 도울 수 있었다. 앞으로 (사)광주YWCA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고려인을 돕기 위한 ‘평화나눔터’를 상시 운영하여 의료 및 각종 생활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YWCA

황수미 간사

탈핵 시민 아카데미



군산YWCA는 탈핵후생명운동의 일환으로 탈핵 시민 아카데미를 7월 13일(수), 7월 14일(목), 7월 20일(수), 7월 21일(목) 오

후 4시부터 6시까지 총 4회 진행하였다. 이번 탈핵 시민 아카데미는 탈핵운동에 관심 있는 군산Y 회원들과 군산 시민 15명이 참여하였으며, 강사로는 지역사회에서 탈핵 교육에 관해 지속적으로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해 온 군산영광중학교 김영진 교사가 함께 참여 하였다. 왜 탈핵인가? 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핵발전소의 현황과 문제점과 핵사고의 사례, 대안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으며 앞으로 군산Y가 탈핵운동을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원YWCA

임진아 간사

성평등 정책을 위한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교육 참여



남원YWCA는 7월 8일(금) 오후 1시에 성평등 정책을 위한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교육에 참여하였다. 이 교육은 현장 모니터링 실시에 앞서 원활한 모니터링 진행을 위해 성 주류화 정책과 성인지적 모니터링의 방법, 모니터링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표 만들기, 조별 토론 중심으로 교육 진행되었다. 교육 끝난 후 7월 11일(월) 오후 4시에 남원 도통동 공원에서 시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중 아동과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시설이 정비가 잘되어있는지 파악하고 화장실과 공원 주변에 CCTV가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개선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2022 (사)목포YWCA 전직원 연수

(사)목포YWCA는 7월 19일(화)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본부와 부속시설직원 40명이 참여하여 ‘같이 ON’ 직원 연수를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강경숙 부회장의 기도와 목적론 낭독 등 여는 예배로 시작하여 이경애 중경회장의 YWCA 중점운동. 직원으로서의 소명을 위한 YWCA 정체성 교육으로 실무자로서의 목적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부에서는 문상준 강사의 「나 그리고 Y, 우리 그리고 Y」 테마를 토대로 스카프 활용 활동, 종이컵 쌓기, 아트 테라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타인과 조율하고 공감하며 서로 화합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코로나 19로 4년여 만에 전직원이 함께 한 이번 연수는 신규 및 기존직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속감 증진과 (사)목포YWCA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서귀포YWCA

김지희 팀장

(사)서귀포YWCA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사)서귀포YWCA(회장 고맹수)가 6월 21일(화) 오후 2시 (사)서귀포YWCA회관에서 ‘같이 이룬 30년, 가치 더할 30년’을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서귀포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기념식은 1부 기념예배와 2부 축하공연으로 YWCA소년소녀합창단 출신 청년음악가들이 만드는 작은 음악회, 3부는 30년 동안의 YWCA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비전을 선포하는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사)서귀포YWCA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역의 교회와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감사패를 수여하고 공로패, 봉사상, 근속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져 지난 30년의 시간을 축하했다. (사)서귀포YWCA는 1992년 6월 26일 창립해 사회봉사와 지역사회운동에 목적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

하는 비전선포로 마무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사)순천YWCA

신정옥 간사

청소년이 주도하는 ‘검은 목요일 캠페인’ 진행



(사)순천YWCA는 7월 16일(토) 순천시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주도하는 ‘검은 목요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공동체 활동 및 행사들이 제한된 가운데 ‘여성다움? 남성다움? 그냥 나다움!’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평등 퀴즈와 소원 팔찌 만들기 체험부스를 통해 보다 더 쉽고 즐겁게 검은 목요일 캠페인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적인 불평등, 혐오 표현, 불법촬영과 성범죄, 형식적인 폭력예방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이뤄지는 사회 속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행사였다.

(사)여수YWCA

서하람 간사

검은목요일 캠페인 진행



(사)여수YWCA(회장 조애숙)는 7월22일 오후 5시 여서동 사거

리에서 약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은목요일 캠페인을 진행했다. 검은목요일 캠페인은 세계여성폭력 추방을 위해, 저항과 회복을 의미하는 검은옷과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매일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성폭력과 젠더폭력에 대해 알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사)여수YWCA는 성폭력과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익산YWCA 김다영 간사

익산YWCA 회관 이전예배 및 이전식



익산YWCA(회장 손계영)는 7월 19일(화) 오후 2시부터 회관 이전예배와 이전식을 진행했다. 권오국 목사(이리신광교회)의 “믿음의 여인 에스더” 설교 말씀과 축도로 회관 이전예배를 열었으며 정현을 익산시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전식에는 유관기관 단체장 및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손계영 회장은 “이전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함을 전하며 YWCA의 목적으로 신앙을 바탕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자신이 녹아지며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어두움을 밝히는 빛처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전주YWCA 최은주 간사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 '지구산책'



(사)전주YWCA는 올해의 중점운동인 탈핵기후생명운동의 일환으로 3월과 4월에 사순절 캠페인 '지구와 이웃을 돌보는 40'

일 탄소금식'과 '지구의 날 SNS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이어 이번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5주간 이루어진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지구산책'은 (사)전주YWCA 회원과 지구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진행했다. 지구의 위기를 인식하고 지구촌의 아픔에 공감하며 우리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실천을 지구산책이라 칭하고 채식으로 먹기, 새로운 시각으로 지구를 보기, 가까운 사람들과 걷기, 친환경제품 쓰기, 거리의 쓰레기 줍기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제안하였으며 나만의 지구산책을 실천한 뒤 실천 활동을 엽서에 작성하여 (사)전주YWCA 1층에 위치한 초록우체통에 넣기를 독려했다.

(사)제주YWCA 추현우 간사

2022 평화아카데미 제주시지역



지난 5월부터 시작된 <2022년 평화아카데미 제주시지역>은 매회 3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6월 이후 열린 세 번의 강좌는 각각 평화박물관 변상철 연구위원,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 제주하나센터 최화봉 사무국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수강생들은 '제주 4·3 사건'과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북한이탈주민'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통해 평화 시민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평화아카데미는 9월까지 총 7강의 강좌와 현장탐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지난호를 바로잡습니다. ※

- ① 월간 5-6월호 10쪽 1째줄:
화보집에 수록된 총 60장의 사진 -> 601장으로 바로잡습니다.
- ② 월간 5-6월호 54쪽 1) 개인후원:
박용욱 사)3.1여성 동지회 회장
500,000 -> 1,000,000원으로 바로잡습니다.

품격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요양보호사님"
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르신"
이라고 불러주세요

😊 이런 업무를 합니다!

- 신체활동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지원

☹️ 이런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요구
-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요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요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
- 과도한 신체접촉, 성적 농담 등 성희롱(폭력), 인권침해

😊 어르신을 존중해주세요!

-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자세
-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 관리
- 친절하고 예의 바른 행동
- 어르신께 존칭과 경어 사용
- 지속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

☹️ 이런 행동은 안됩니다!

- 어르신을 차별대우 또는 무시하는 태도
- 친밀함을 이유로 유아어, 반말 등 사용
- 개인비밀, 사생활을 내외부로 발설
- 학대 및 폭력행위, 물질적 보상 요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요양보호사는 돌봄전문직이며,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한국YWCA 창립100주년 감사축제

2022.
09.29.목
오후 2시

이화여자고등학교
유관순기념관

 생중계

2022.09.29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8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사)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사)서귀포	064.762.1400	(사)전주	063.224.5501
(사)고양	031.919.4040	(사)서울	02.3705.6000	(사)제주	064.711.8322
광명	02.895.1966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양	061.762.0012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사)광주	062.609.1300	(사)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군산	063.462.4491	속초	033.635.3523	(사)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사)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사)순천	061.744.7990	(사)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사)논산	041.736.7393	(사)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사)대구	053.652.0070	(사)안양	031.455.2700	(사)통영	055.646.2547
(사)대전	042.254.3035	(사)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사)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사)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사)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사)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